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27호 HYUNBULNEWS.COM 2025년 4월 16일(음력 3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10·27법난기념관 건립 불사 '본격화'

조계종, 4월7일 협상대상 발표
포스코에이앤씨 컨소시엄 선정
'화엄 세계 체험 여정' 주제로
오는 2028년 기념관 준공 목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10·27법난에 대한 홍보와 교육, 명예회복과 피해자 예우를 위한 공간인 10·27법난기념관이 '화엄의 세계를 체험하는 여정의 공간'을 주제로 2028년 준공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 결과 ㈜포스코에이앤씨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4월 7일 밝혔다. 조계종은 설계공모 및 현장설명회 후 3월 27일, 접수된 총 9개 업체의 설계 작품 심사를 진행한바 있다.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가 설계비 포함 1972억원에 달하는 대형 불사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봉은사 부지에 건립예정인 10.27법난기념관은 연면적 5만6029.09㎡, 건축면적 1만1956.71㎡ 규모다. 지하 4층, 지상 3층 철골철근콘크리트와 트러스 구조로 공연장, 전시장 및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이다.

조계종은 이번 설계공모에서 10·27 법난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불교 전통문화 정신을 계승하는 복합 문화 추념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불교계의 역사적 의미를 간직하고 치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9개 업체가 제출한 작품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들은 계획의 창의성, 전통사찰과의 조화를 고려한 배치계획, 복합문화시설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계획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1차 및 2차 심사 전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주범 건국대 교수는 "당선작이 봉은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서울의 대표적 도심 속 전통사찰인 봉은사와 자연, 도시가 어우러진 배치로 조화롭게 계획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10·27법난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국가권력의 종교탄압 사건이다. 당시 사찰 6000여 곳이 강제 수색 당했으며 스님을 포함한 불교계 인사 2000여 명이 강제 연행돼 고문과 인권을 유린당했다.

조계종은 피해 스님들과 10·27법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관련 세미나 개최, 기념관 설립을 추진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2007년, 이를 국가의 과오로 인정한 바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27법난기념관은 과거사의 기억과 회복, 불교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복합 문화 추념 공간"이라면서 "전시, 교육, 공연 등을 통해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널리 알리며,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27법난기념관 조감도.



동국대 학생들, 연등 제작 '삼매경'

불기 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 동국대 대학생 불자들이 교내 곳곳에 마련된 연등공방에서 학교 마스코트 '아코등'을 비롯한 연등 제작에 매진 중이다. 사진은 동국대 학생들이 '아코등'을 채색하고 있는 모습.

글 · 사진=신중일 기자

선지식 7인 참여 '담선대법회' 열린다

〈談禪〉

국가의 극심한 혼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법석이 열린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와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성원 스님)는 전국선원수좌회와 함께 4월 14~20일 일주일간 매일 오후 3시(4월 15일만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국난 극복과 마음치유를 위한 담선(談禪)대법회를 봉행한다.

담선대법회는 고려시대부터 국가에서 3년마다 개최한 법회로, 선의 지혜로 국민 대화합과 국운융성을 발원하는 대법석이다. 이번 대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됐다. 지난 시간 힘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하며, 우리나라가 더욱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기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이번 대법회에서는 평소 친견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지식 스님 7인이 매일 총 7일간 법회를 이끈다. 교재는 〈육조단경〉이다. 〈육조단경〉은 혜능 선사의 설법을 담은 경전으로, 조계종은 혜능 선사의 법호인 조계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4월 14~20일 서울 조계사서
韓불교 대표 선사 법석 펼쳐
국운융창 국민치유 염원 담아

4월 14일 오후 3시 백담사 조실 영진 스님을 시작으로 4월 15일 오전 11시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 4월 16일 오후 3시 송광사 방장 현묵 스님, 4월 17일 오후 3시 백양사 수좌 일수 스님, 4월 18일 오후 3시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 4월 19일 오후 3시 상원사 선원장 의정 스님, 4월 20일 오후 3시 해인사 방장 대원 스님 순으로 법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4월 8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은 "최근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으며 마음의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선지식인들의 선의 지혜로 국민들의 미음을 치유하는 법석을 마련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스님들의 뜻을 반영해 담선대법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담선대법회가 간화선의 활기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어른스님들을 찾아 뵙고 취지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대부분 스님들이 간화선의 중요성과 선명상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계셨다"면서 "흔쾌히 동참 의사를 밝혀 법회가 성사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흐트러졌던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귀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법향 가득한 대법회가 될 것"이라며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권했다. 02-768-8600

임은호 기자

'동화사 총림 해제' 논란 조계종 총무원 감사 진행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의 총림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총림 해제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해 온 동화사 집행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4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출했다"고 밝히고 "종헌종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반면 동화사 재적승 22명은 7일 '팔공상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제9교구 대중회의'를 구성하고 "총림 해제는 종단이 실시한 세 차례 실사 결과에 따른 결정"이라며 "집행부는 지금 당장 종회 의결을 수용하고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논란이 계속되자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은 "종회는 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총림 지정을 해제한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총무원은 4월 14일부터 팔공총림 실태 파악을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연등시공
연등 자동 승강장치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尹 파면…불교계 "이제 화합하자"

헌재, 4월 4일 탄핵소추안 인용결정
"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 국가 손실"
불교계 '국민화합' 당부 메시지 발표
진우 스님 "단합된 지혜로 대화합 길"

신중일 · 임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등 핵심적인 탄핵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었다"고 결론내렸다.

파면 선고와 함께 불교계는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갈 때"라고 입을 모으며 '국민 화합'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헌법 질서에 따른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대화합의 길로 나아갑시다' 제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진우 스님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에 대해 "법과 제도에 따른 최종적 판단으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4월 4일 열린 탄핵 심판 선고 공판을 앞두고 안국역 인근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모습.

는 분명한 증거"라며 엄중한 결정 앞에 국민 모두가 성숙한 자세로 법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한 사람의 권력도, 특정 이념도 아닌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한 진우 스님은 "오늘의 판단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나라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다시는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깊은 성찰과 단합된 지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천태종은 총무원장 덕수 스님의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안정과 화합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가 조속히 국가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 스님은 "이제 깊은 성찰을 통해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갈등과 대립의 벽을 넘어 대화합의 길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성명서에서 "깊이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종교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함께 치유와 통합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며 "태고종은 이번 탄핵을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고, 앞으로도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길에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입장문에서 국민 화합을 호소하며 밝은 눈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것도 당부했다. 법명 스님은 "이제 둘로 분열되었던 국민은 하나로 힘을 합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 시민단체들도 국가 혼란 치유와 변화된 사회를 염원했다.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시국회의는 입장문에서 "파면 선고는 파국적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가 신뢰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국론 분열과 국가적 혼란 상태를 치유하고,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주의의 가치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국민을 혼란으로 몰고 간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참회를 촉구하며 "수많은 실정으로 피폐해진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실천불교승가회는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의 발길은 멈추지 않고 이제 시작임을 밝히며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더욱 강화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새 원로의원에 보광 스님

원로회의, 4월 9일 제78차 회의서 선출
보광 스님 "종단 안정 · 발전 기여" 다짐
4월 22일 고운사 화재 위로방문 결의



조계종 새 원로의원에 전 호계원장 보광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자광 스님)는 4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78차 원로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정했다.

앞서 중앙종회는 3월 26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신임 원로의원으로 보광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한바 있다. 원로의원 임기는 10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보광 스님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종도들의 도움으로 호계원장을 무사히 잘 마무리하게 됐다"면서 "그 공덕으로 이번 의원으로 추천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원로의원은 종단에서 최고 의결기구"라며 "종법을 잘 살피고 원로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종단이 안정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하겠다. 불교 전통을 기반으로 더욱 젊어지는 한국불교가 될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음사(종하 스님) 사실관계 보고 △산불 재난에 따른 성보 피해 현황 및 지원 계획 보고 등이 있었으며 논의로 '원로회의 의원 선출의 건'을 다뤘다. 기타사항에서는 △고운사 산불 피해사찰 성금 모금 및 현장 방문 △대종사 법계 자격 관련 논의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안 관련 보고 등이 다뤄졌다.

회의에 앞서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먼저 유례없는 산불로 인한 많은 희생에 대해 언급하며 기금 모연과 현장 방문 등에 대해 회의에서 의견 나눌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원로회의는 4월 22일 의성 고운사를 위로 방문하기로 결의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회의 참석 원로의원 스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사회가 혼란스럽지만 원로스님들의 화쟁과 화엄의 정신을 본받아 종단은 종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종단 미래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진하겠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지남 삼아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로회의에는 재적인원 20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8일 올해 장학승으로 선발된 4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조계종단 장학승 40명…진우 스님 "지원 확대" 약속

4월 8일,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국외 1 · 국내 25 · 승가대 14명 등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4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열린 불기 2569(2025)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승으로 선발된 4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선발된 장학승은 국외 1명, 국내 25명, 사찰 승가대학원 14명 총 40명이다. 앞서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정묵 스님)는 종단이 정한 전공 분야, 수학 계획서, 자기소개서, 성적, 종단 기여 가능성, 추천서 등 총 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학생을 선발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에서 주는 정식 장학금 수여자로서, 앞으로 종단의 디딤돌 역할이자 앞날을 책임질 스님들"이라고 치하하며 "더욱 더 학업에 충실해 종단 발전과 포교에 큰 기둥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종단에서는 전 학인들에게 전애 장학금을 줘야하지만, 종단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누구나 종단의 지원을 받아 공부하고 수행정진 할 수 있도록 총무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조계종의 종단 장학승 선발사업은 현대사회 변화에 대응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신규 선발된 4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308명의 장학승이 배출됐다.

임은호 기자

조계사 막던 '동양금박' 철거…성역화 불사 탄력

4월 8일 가림막 설치…5월 말 경 철거
담화 스님 "미래 도량으로 거듭 날 것"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 일주문을 가로막고 있던 동양금방 빌딩이 5월 말 철거된다. 수년간 지속돼온 인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결과로, 일주문의 3분의 1가량을 가로막던 빌딩이 철거되면 조계사 일대 성역화 불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계사는 4월 8일 동양금박 빌딩 전면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부처님오신날 이후 5월 말 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주문을 가로막고 있던 동양금박 빌딩 철거는 조계사의 오랜 숙업사업이었다. 2014년


조계사는 5월 말 동양금박 빌딩 철거에 앞서 가림막을 설치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조계사는 성역화 불사 완수를 위한 숙원사업이었던 동양금박 매입에 나섰고, 사부대중의 모연으로 2021년 12월 30일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입자와의 점포 인도 문제를 두고 법정 분쟁이 일면서 3여년 간 철거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조계사에 따르면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동양금박을 점유하고 있던 세입자가 4월 6일 자진 퇴거하면서 철거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조계사는 부처님오신날 이후 철거하기에 앞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인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가 담긴 가림막을 설치하고 조계사 총본산 성역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은 "일주문 앞이 트이게 됨으로써, 조계사가 국민의 갈등과 고뇌를 치유하는 명상도량이자 미래가 있는 종단의 중심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대종사·명사 품서식…“승가의 사표 탄생”

4월 10일, 통도사 설법전서 봉행
대종사 48 · 명사 16 총 64명 품수
성파 대종사 “교화 덕행 결정체”
진우 스님 “정법 당간지주” 당부



4월 10일 통도사 설법전서 봉행된 대종사 · 명사 법계 품서식에서 대종사 48명, 명사 16명이 품수받았다.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조계종이 불기2569(2025)년 대종사·명사 법계 품서식을 4월 10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대종사·명사 법계 품서식은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와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에 오른 수행자들의 가르침과 삶을 기리며, 그 정신을 승가와 불자들이 함께 되새기는 자리이다.

이번 품서식에서는 총 64명의 스님들이 법계를 품수했다. 대종사 48명, 명사 16명이며, 스님들은 수십 년간 수행과 교화를 통해 쌓아온 공덕과 지도를 인정받아 종단으로부터 법계증과 25조 대가사를 수여받았다.

이날 법석을 증명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어에서 “대종사와 명사의 법계는 오랜 세월 동안 정진과 수행, 설법, 교화의 공덕이 축적된 결과”라며 “이름 뒤에 숨겨진 그간의 노고와 열정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수행을 견디며 정법을 전해 온 그 길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모두가 헤아려야 한다”며 “종단과 사부대중은 대종사와 명사 스님들의 공덕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승은 100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마을을 지켜온 수호신과 같다”며 “이처럼 오늘 품서 받는 스님들도 불법을 지키고 교단을 바로 세우는 수호자의 삶을 걸어오셨다”고 찬탄했다. 스님은 “법계는 출가 수행자의 수행력과 권위의 상징이며, 대종사와 명사 법계는 일평생 수행정진과 교화덕행의 결정체”라고 설했다.

법계 수여에서 성파 대종사는 법계증을 대종사 대표 보각 스님에게, 대가사를 지현 스님에게 수여했으며, 명사 대표 상덕 스님에게는 법계증을, 정엽 스님에게 대가사를 수여했다. 이어 모든 품수자들은 가사 정대를 마치고 삼배를 올렸으며, 정대게송을 합송하며 서원을 다졌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축사에서 “대종사와 명사 스님들께서는 조계종의 기틀을 세우고, 수행의 길에서 한결같은 걸음을 걸어오신 사표”라며 “오늘 이 자리가 종단 구성원 모두가 정법을 새기고 화합을 이루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법의 당간지주가 되어 불조의 혜명이 면면히 이어지도록 후학을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앙망한다”며 “종단 역시 신뢰받는 불교, 공심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실현하기 위해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이와 함께 대종사 대표 영담 스님에게 지도자의 상징인 불자(拂子)를, 명사 대표 상덕 스님에게는 자비의 상징인 여의(如意)를 각각 봉정했다.

이날 법계 품수자 가운데 종열·삼보·보각·영담·지현·원행·수불 대종사는 수행과 교화의 결실을 종단에 회향하고자 ‘승려복지 기금’을 총무원에 전달했다. 본각·상덕(직지사)·상덕(직할교구)·정엽 명사도 동참했다. 이 기금은 승려전문 요양병원 운영과 종단 복지 기반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법계 품수자를 대표해 수불 대종사가 발원문을 낭독했다. 스님들은 “삼계의 대도사이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법계에 두루 비치시어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시기를 바란다”며 “성불에 이를 때까지 물러남 없이 용맹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이어 “이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 법이 세상을 덮고, 법의 수레바퀴가 쉼 없이 굴러 온 법계가 화장세계로 꾸며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불교 조롱 논란 ‘갈비집’ 간판…“상식 밖 상업주의” 비판

승복입은 소 캐릭터 ‘눈살’
논란 일자 “곧 교체 예정”

경북 경주 황리단길의 한 식당이 불교 수행자 복장의 캐릭터를 간판에 사용해 조롱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업체 측이 해당 간판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간판은 ‘교리숯불갈비’라는 상호의 식당 안내 간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간판 속 캐릭터는 승복을 입고 염주를 든 채 혀를 내민 소의 모습으로, 불교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교를 희화화한 상업주의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불교 수행자의 복장이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 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 고기 요리점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불교계는 이 캐릭터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불교 가르침을 왜곡하고 희화화한 것이라고 시정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일부 방문객들이 해당 캐릭터를 ‘소 스님’이라 부르며 장난스럽게 소비하고 있던 상황.

이에 대해 동국대 WISE캠퍼스 죽림회장 도연 스님은 “이런 캐릭터는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불교 가르침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부처님 제자 복장을 한 캐릭터가 고기를 앞에 두고 웃고 있다는 건,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명백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불교상담학회 총괄이사 현도 스님도 “불교의 상징을 이용해 갈비를 팔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 밖”이라며 “관광객을 끌기 위한 마케팅이라 해도 최소한의 종교적 배려와 존중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가게 측은 간판 교체 방침을 밝혔다. 4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계자는 “현재 간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체 작업에 시간이 소요돼 다음 주 중으로 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불교계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마케팅 실수로 보지 않고, 종교 상징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분남 부산여성불자회장은 즉시 경주시청에 문제 간판 관련 민원을 전달했다. 정 회장은 “불교의 상징이 상업적 도구로 전락하는 일에는 반드시 제동이 걸려야 한다”며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감수성을 지키는 일은 행정기관과 시민, 불자 모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죽림회장 도연 스님은 “발 빠른 대처로 간판이 곧 교체된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신행의 품격을 지켜낸 불자들의 힘을 다시 한 번 느꼈고, 앞으로도 불교의 상징과 정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상월결사, 문화공연법회 ‘잠시멈춤’ 연다

5~6월 의정부, 대구 등 전국서
상월비보이 등 청년불자 참여

상월결사(이사장 호산 스님)는 4월 8일 서울 봉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6월 6차례에 걸쳐 의정부·대구·구미·논산·부산에서 문화공연법회 ‘잠시멈춤(PAUSE)’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공연법회 ‘잠시멈춤’은 비보잉, 뮤지컬, 미디어 아트 등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이다. 이경재 연출가가 연출을 맡은 이번 공연에는 최예림 국악 싱어송라이터, 길대호 보컬리스트를 비롯해 상월결사 비보이단 ‘EEIGHT’, 상월결사 합창단, 상월결사 JH콰이어 등이 참여한다. 출연진 모두 청년 불자들로, 이들이 기획하고 무대를 구성했다.

공연은 총 4장으로 이뤄졌다. 1장 논스톱(NONSTOP)은 순수한 놀이가 중독이 되는 과정을, 2장 스크림(SCREAM)은 중독으로 자신의 감정이 무너지는 과정을 비보잉과 뮤지컬 안무로 그려낸다. 3장 퍼즈(PAUSE)에서는 출연진과 모든 관객들이 명상을 하며 1분간의 절대적 침묵을 체험하고, 마지막 장인 4장 플레이(PLAY)는 멈춤 이후 더 자유로워진 자신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표현한다.

상월결사의 문화공연법회 ‘잠시멈춤’은 5월 10일 오후 2시·6시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아양아트센터(5월 25일 오후 6시) △구미문화예술회관(6월 1일 오후 6시) △논산훈련소(6월 14일 오후 3시) △부산시민회관(6월 21일 오후 6시)에서 진행된다. 공연 일정 중에는 영남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도 이뤄질 예정이다.

호산 스님은 “‘잠시멈춤’은 일회성 공연이 아니라 청년불자들과 수정·보완하며 완성시켜 나가는 공연이 될 것”이라며 “종단과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세상을향기롭게 · 로터스월드, 캄보디아에 자전거 선물

사단법인 세상을향기롭게(이사장 정여 스님)와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4월 5일 로터스월드 캄보디아아동센터에서 학생 300명에게 통학용 자전거를 전달하는 기증식을 진행했다. 세상을향기롭게 이사장 정여 스님은 “캄보디아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분실·파손 ‘조계종 신도증’ 무료 재발급

7월 31일까지 사찰 종무소 신청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는 종단 조직개편에 따른 삼원통합을 기념해 7월 31일까지 ‘조계종 신도증 무료 재발급’ 이벤트를 운영한다.

2025년도 교무금을 납부한 조계종 신도에 한해, 재적 사찰 종무소에서 신도증 무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조계종 신도로 등록하면 동국대의료원 및 경희의료원 진료비 할인, 불교전문서점 향전 도서 구입비 할인, 하동 케이블카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조계종 신도증은 스마트폰에서 모바일로도 소지할 수 있다. 재적 사찰에서 신도 등록을 완료한 후,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조계종 모바일 신도증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로그인 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제5회 법계문학상 수상작



『구마라습』 혜월 지음
396쪽 | 142*205 | 값 18,000원



제1회 수상작 푼다리카 신이산 지음
제2회 수상작 꺼지기 쉬운 빛 이갑숙 지음
제3회 수상작 푸른벌의 노래 이종숙 지음
제4회 수상작 블루마운틴 강영애 지음

제6회 2025 법계문학상 공모 안내

법계문학상은 <운문사>를 한국 최고의 비구니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키며 비구니 교육과 권익증진에 평생을 바친 법계 <명성 스님>의 서원에 의해 제정된 불교문학상입니다.

| 응모부문 장편소설 1편 (200자 원고지 1000매 이상)
| 응모주제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자유 소재
| 응모대상 대상 1명
| 응모기간 2025년 10월 1일 ~11월 5일
| 상 금 대상 2천만 원
| 응모자격 신인 또는 등단 7년 이내 작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 표 2025년 12월 내 *법계문학상 홈페이지
| 시 상 2025년 12월 내 *추후 공지

| 접수 방법 1) 법계문학상 홈페이지에서 응모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http://blog.naver.com/batistaff (우측 QR코드)
2) 응모 작품 우편 제출 *마감당일 소인 유효함

| 접 수 처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1. 1214호 법계문학상운영위원회

*자세한 공모 안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_ http://blog.naver.com/batistaff
이메일_ batistaff@naver.com
연락처_ 070.8880.8202 팩스_0505.361.9565

6만명 함께한 '2025 선명상 축제' 원만 회향

4월 1~6일, 봉은사서 성황리 열려
명상 통한 '마음 평안, 세계 평화'
9월까지 전국 거점 사찰 지역 축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이 주최하는 '2025 국제 선명상 대회'의 축제가 5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축제에는 총 6만여 명이 넘는 관람객과 수행자가 참가했으며 국내외 명상 지도자가 함께해 글로벌 행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4월 1일,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진행된 개막식 이후 5일 동안 이어진 '국제 선명상 축제'는 '선명상'을 대중들의 일상 속으로 확장시키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대중에게 선명상의 가치를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자, 명상과 수행이 단지 개인의 수양을 넘어 세계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모두와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조계종이 4월 3일 서울 봉은사에서 개최한 '주한 외국 대사 초청 한국불교문화교류'에서 15개국 주한 대사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지도로 선명상을 체험하는 모습.

'깨달음을 위한 선명상' '몸을 위한 선명상' '삶을 위한 선명상' '치유를 위한 선명상' '집중을 위한 선명상' '소통을 위한 선명상' '휴식을 위한 선명상' 등 총 7개 카테고리로 구성된 이번 축제의 프로그램들은 5일간 총 118여 회 진행됐다. 축제 기간동안 누적 체험 인원 1만명 이상이 참여해 폭넓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4월 6일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진행된 회향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일감 스님(봉은사 선명상 연구소장)이 대독한 회향사에서 이번 축제가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선명상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모색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확신했다. 스님은 "이번 대회는 '선명상을 통한 마음의 평안, 세계 평화'라는 주제 아래 각국의 명상 지도자들과 수행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수행 전통이 하나로 어우러져, 진정한 치유와 화합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2025 국제 선명상 대회'의 다음 행보는 '국제 선명상 지역 축제'로 이어진다. 4월 말부터 9월까지 인천과 경기, 강원, 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제주 등 전국 주요 사찰에서 지역 축제가 열린다. 10월에는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선명상과 교육'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된 후 폐막식과 시상식을 끝으로 여법하게 회향할 예정이다.

'2025 국제 선명상 대회'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온라인 누리집(www.seonmeditation.kr)과 공식 인스타그램(@seon_meditation_summit)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부처입니다"

정혜 스님 '선명상과 화엄경 해인삼매' 강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부처입니다. 내 남편도 부처고, 내 아들도 부처고, 내 아내도 부처입니다. 심지어 나를 속 썩이는 사람도 부처님입니다. 스스로 부처임을 잊지 말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쓰길 바랍니다."

2025 국제 선명상 대회 4일 차인 4월 4일. 조계종 선명상위원회 운영위원 정혜 스님이 봉은사 법왕루에서 열린 '깨달음을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 첫 강사로 나섰다. '선명상과 화엄경 해인삼매'를 주제로 진행된 강의에는 200여 명이 넘는 불자들이 참석해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사진〉

정혜 스님은 부처님법을 듣고 출가해 염화미소로 깨달음을 증명한 가섭존자의 일화를 들려주며 '내가 곧 부처'임을 일깨웠다. 스님은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스스로가 본래 부처임을 명확히 깨달으면 어디에도 걸림 없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숨을 들이쉬는 순간부터 내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경계해 빼앗기지 않고 호흡에 전념한다면 몸과 마음이 힘을 얻고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된다"며 일상에서 짧게라도 선명상을 실천하길 권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싱잉볼 명상과 선무도를 실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론과 실습을 직접 경험한 참석자들은 선명상의 다양한 접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규태 국제포교사회장은 "법문과 싱잉볼, 선무도가 결합된 강의가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해줬다"고 밝혔다.

박혜명심(65) 불자도 "아는 스님의 추천으로 오늘 처음 국제 선명상 대회에 참석하게 됐다. 강의를 직접 들어보니 잡념이 없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봉은사 곳곳에서 진행된 선명상 프로그램에도 많은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내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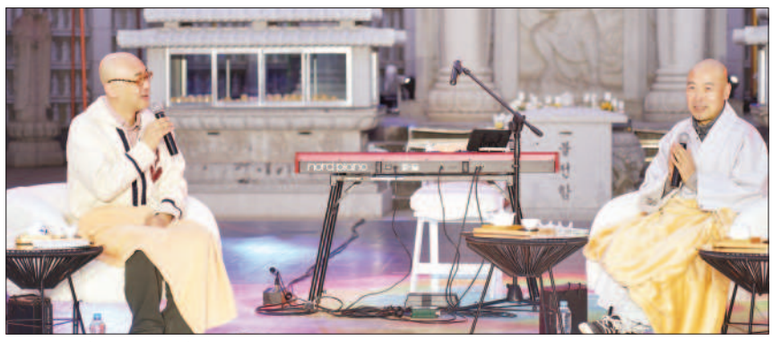
선명상과 노래로 '위로' 전하다

하림 스님×가수 하림 토크콘서트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세 가지 이별 사연에 공감 건네

사랑과 이별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선명상과 음악으로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하림 스님과 가수 하림의 토크콘서트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가 4월 4일 서울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열렸다.

2025 국제 선명상 대회 프로그램의 일환인 이번 콘서트는 20~30대 청년들이 사전에 접수한 이별 사연 가운데 3가지를 선정해 함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림 스님은 선명상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전했고, 가수 하림은 음악으로 이별의 아픔을 보듬었다.

첫 번째 사연은 결혼을 준비하던 중 이별을 맞이한 남성의 이야기였다. 사랑으로 서로 다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지 않는 관계라고 결론을 내리고 헤어짐을 선택했다.


하림 스님(사진 오른쪽)과 가수 하림이 이별의 아픔으로 힘들어 하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공감을 건넸다.

하림 스님은 "처음에는 사랑으로 보이던 다름이 점차 요구가 되고, 나중에는 불만으로 변하기도 한다. 결국 상대에게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만 남게 된다"며 "명상을 통해 이런 감정은 상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상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수 하림도 "연애 초반에는 다름이 매력으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름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를 불러 사연자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두 번째는 9년간의 장기 연애로 서로가 익숙해지면서, 사랑이 습관이 된 커플의 사연이었다. "더이상 설렘도 감동도 없다"는 이유였다.

하림 스님은 "감동받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그것이 계속되길 바라면 오히려 괴로워진다"며 "감동은 '번개처럼 오는 선물'과 같다. 그저 선물로만 받아들이거나, 감동 받길 바랐던 마음을 미안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림 스님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법도 제시했다. 스님은 "물이 고요하면 바닥이 서서히 보이듯, 몸에 주의를 두고 가만히 있으면 나를 힘들게 했던 감정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그 마음을 '아, 나에게 이 마음이 찾아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럼 그 감정도 손님처럼 머물다 사라진다. 그때는 '잘 가라' 하고 보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사연은 운동으로 인연을 맺은 연인의 이야기다. 한 사람은 고강도 헬스를, 다른 한 사람은 가벼운 러닝을 선호했다. 결국 그들은 서로의 속도를 맞추지 못한 채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이에 하림 스님은 "상대가 계속 밀어붙이면 결국 넘어진다"며 "속도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마도 그건'이란 음악으로 공감과 위로를 전한 가수 하림은 "지나고 나면 이게 사랑이었나 싶은 순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한때 연인이 내 곁에 있어 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無毛한 선배들의 4인 4색 인생 조언

현주 스님, 홍석천, 이상봉 등
선명상으로 '나답게 사는 법'

BBS불교방송 라디오 '두시의 스마일' 진행자 현주 스님을 비롯해 이상봉 패션 디자이너, 방송인 홍석천 씨,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영구소장이 4월 5일 서울 강남 봉은사 법왕루에서 진행된 '무모한 법회-서원이 있는 삶'에 출연해 각자의 무모했던 인생 도전기를 전하며 MZ세대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사진〉

삶의 고민에 대한 진지한 조언을 던진 4명의 패널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바로 '무모(無毛)'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목표(서원)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나답게 사는 법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다.

4명의 인생 선배들은 법당을 채운 200여 명의 MZ세대들에게 "인생의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예단을 하면 도전 자체를 머뭇거리게 됩니다. 우선, 지금하세요.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면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선연(善緣)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법회는 현주 스님의 지도로 선명상을 체험하며 회향했다. 현주 스님은 "우리는 행복한 감정을 갖기 위해서 권력, 사랑, 재물 등을 추구한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그런 것들로는 찾을 수 없다"며 "내 마음이 편안한 곳,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번뇌라는 나쁜 마음을 없애는 것은 선정과 지혜이고, 선명상은 선정을 위한 수행"이라며 "선명상을 수행하며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인증 승려연수과정

2025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생활수행과 현대적 포교방안
- 화엄세계 : 수행과 담선
- 생활 속의 마음공부 – 치유와 공감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커뮤니케이션과 포교
- 대승기신론과 한마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연수인증 : 조계종승려연수과정 (30점)
- 기 간 : 2025년 7월 17일(목) ~ 19일(토)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강 사 진 : 승단 전문강사진 – 청동스님 (동국대 불교학 박사 수료) 등
  재 가 교 수 진 – 이화행 교수 (동명대), 황수경 교수 (동국대) 등
- 교 육 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인 원 : 40명 (선착순 마감)
- 문 의 : 031-470-3200/3201 (일, 월 휴무)
- 웹사이트: http://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한마음선원·현대불교, 불교박람회를 사로잡다

한마음선원 '마음굴림' 인기만점
팔찌 등 제작하며 마음 굴리기
예약必 '스님과 차담' 인산인해
현대불교 AI 상담봇 '해심이' 시연
신행부터 연애까지 상담 이어져
"궁금증 해소하고 상담도 척척"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바다마음 팔찌를 만들며 한마음선원 '마음굴림'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는 참가자들.



불교박람회 참가자가 현대불교신문 부스에서 AI 상담봇 해심이를 체험하고 있다.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올해도 많은 화제를 선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마음선원이 시그니처 프로그램 '마음굴림'을, 현대불교신문사가 자체 개발한 AI상담봇 '해심(解心)이'를 선보여 관람객들이 이목을 사로잡았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4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가해 '마음굴림'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마음굴림'은 모든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인 '한마음'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한마음선원 혜권 스님은 "모든 것을 나온 자리에 다시 되돌려 놓으면 본래 걸림 없는 한마음이 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서 "생활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재료로 해서 '한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에서 해결해'라고 내면으로 굴리는 것이 한마음에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마음굴림' 프로그램의 골자를 설명했다.

'마음굴림' 프로그램은 전문 봉사자와 함께 해설집을 숙지한 뒤 '바다마음 팔찌'와 '바다마음 컬러링 파우치'를 제작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바다마음 팔찌'의 구성품들을 하나 하나 꿰고, '바다마음 컬러링 파우치'에 패브릭 마카로 채색하며 스스로를 차분하게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다.

이 '무념무상'의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은 스스로를 반추하고, 자신의 고민들을 관조했다. 마음을 굴려 한마음으로 되돌린 자리에는 자기 자신이 찾은 해법이 남았다.

친구와 함께 부스를 찾은 이수민(28) 씨는 "인터넷을 통해 마음굴림 프로그램을 알게 됐는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부스를 찾았다"며 "팔찌와 파우치를 만드는 동안 잡념을 날릴 수 있어서 좋았다. 스스로의 문제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함께 참여한 김민주(31) 씨도 "회사에서 정규직이 되는 것이 일상의 고민이었다. 이 문제로 스트레스도 심했다. 하지만 '마음굴림'을 해보니 내 자신이 집착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마음굴림' 체험 후기들도 스스로의 변화를 찾은 사례들이 많았다. '가족에게 예쁘게 말하고 싶다'고 한 김일지 씨는 "말하기 전에 '바다마음에 굴려서 말하게 해' '한마음에 굴려서 말하게 해'라고 해보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마음굴림' 체험과 함께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은 '스님과의 차담'이었다. '스님과의 차담'은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참가자들은 스님과 차 한잔을 나누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한마음선원 '마음굴림' 부스에서는 국제문화원이 발간한 대행 선사 관련 외국어 도서, 불교용품점 '무진향'이 제작한 불교 굿즈, EM지구사랑 작은실천의 EM제품들도 대중에게 소개됐다.

이와 함께 현대불교신문사(대표 한명우)가 박람회 기간동안 시연한 AI신행상담봇 '해심이'도 화제였다.

'해심이'는 구글의 제미나이 무료버전과 구글 AI 검색 기능을 기반으로, 불자 맞춤형 신행 상담은 물론 마음 치유, 명상, 수행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불교신문 홈페이지 '현불뉴스(hyunbulnews.com)'에서 상담봇 아이콘을 누르면 별도의 상담창을 통해 제공된다.

현대불교신문 부스를 찾은 참가자들은 신행에 대한 궁금증부터 불교용어·교리, 학업, 연애 등 다양한 주제의 질문을 쏟아냈고, '해심이'는 맞춤형 답변을 내놓았다. '해심이'의 친절하고 상세한 해답에 참가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윤선(31) 씨는 "가수 제니의 노래 '젠(ZEN)'에서 나온 '만트라'라는 불교용어가 궁금해서 '해심이'에게 물었는데 상세하게 답변해줬다. 불교를 설명해주는 AI상담봇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고 말했다.

연애문제에 대해 상담한 김지연(25) 씨는 "불교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친절하게 대답해줘 신기했다"며 "연애상담도 했는데 위로가 되는 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불교종단 및 단체 지도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4월 3일 개막식 이후 부스들을 라운딩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현대불교신문 AI상담봇 '해심이'를 살펴보고 격려했다. 박람회 기간에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등이 현대불교신문 부스를 찾아 '해심이'를 체험했다.

마가 스님은 "불교계 언론 중 AI신행상담봇을 개발한 곳은 현대불교신문이 처음"이라며 "현대불교신문이 새로운 신행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모습이 놀랍고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한편, 현대불교신문은 향후 AI기술과 불교 콘텐츠의 융합을 통해 불교 신행 문화의 대중화와 실생활 속 활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이모저모

관세음보살 인연 팔찌 인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부스는 관세음보살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인연 팔찌'를 나눠주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첫날 준비한 700개가 모두 소진된 데 이어, 다음날도 600개가 빠르게 동이 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특히 스님들이 직접 만들 연냉면, 패션푸르츠청, 곤약젤리 등 건강한 먹거리는 물론 현장에서 구워주는 와플도 눈길을 끌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불교박람회는 숨어 있는 불자를 발견하고, 불교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축제"라며 "선명상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를 친숙하게 접할 기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구니회 문화포교부장 대원 스님은 "올해 젊은 관람객들은 지난해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불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비구니회의 활동에 궁금증을 드러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점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대행 선사 가르침, 원더풀"



한마음선원 부스에서 관람객들에게 '마음굴림' 프로그램을 홍보한 푸른 눈의 불자가 캘리 콘린(Kelly Conlin·사진 왼쪽) 씨. 한국 법명은 '하연'이다. 콘린 씨는 미국 앤아버 선련사 주지 하주 스님의 제자로, 지난 2022년 열린 대행선연구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로 참여한 하주 스님과 함께 방한하며 한마음선원과 인연을 맺었다. 학술대회 이후 콘린 씨는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영문판을 접하게 됐고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매료돼 한국을 다시 찾았다.

한마음선원에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콘린 씨는 박람회 기간 중 자원봉사를 자처했다. 봉사를 마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콘린 씨는 한국어를 배워 본격적으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알아갈 계획이다. 콘린 씨는 "대행 선사는 이 시대의 귀한 선지식이다. 한국에 머물려 귀한 법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중일 기자

도자부처 모시고 불사 동참



2025 서울국제박람회에서는 도자부처님이 계시는 부스가 눈길을 끌었다. 이는 부산불교교육대학 범혜 스님이 운영하는 것으로 '더붐비전센터' 조성불사를 홍보하는 것이 골자였다. 거제시 제석산 부지에 조성될 예정인 '더붐비전센터'는 기존 사찰 건축 양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전의 우주관과 사상 등에 입각해 건축 설계가 이뤄졌고, 불사를 위한 원불을 모연 중이다. 원불도 일반적인 부처님과 다르다. 도자 조형 작가인 이세훈 동아대 교수에 의뢰해 만든 것으로 초벌구이된 도자부처님에 자신이 채색한 뒤 유약을 바르고 재벌해 하나의 작품으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자부처님은 거제에 지어질 '더붐비전센터'에 봉안된다.

범혜 스님은 "더붐비전센터는 번뇌 망상을 비우고 내일을 설계하자는 의미를 가졌다"며 "새로운 형식의 도량에 많은 불자들이 수희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사찰음식으로 부처님 가르침 전해요”

선재사찰음식문화원, 4월 7일
‘사찰음식 전법단’ 발대식 개최
스님 40명 · 재가자 80명 구성
자비 · 절제 · 생명존중 정신 알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선재사찰음식문화원이 사찰음식 전법단 발대식을 열고 사찰음식을 통한 전법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사찰음식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과 나누기 위한 ‘사찰음식 전법단’이 새롭게 출범했다. 30여 년간 사찰음식 연구와 대중화에 앞장서온 사찰음식 명장 1호 선재 스님을 중심으로, 생명존중과 소욕지족의 정신을 전하는 다양한 전법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재사찰음식문화원(원장 선재 스님)은 4월 7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1층 메따강당에서 ‘사찰음식 전법단 발대식 및 품수증 수여식’을 열고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 사무처장 덕운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본연 스님,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 유나방송 대표 정목 스님, 참나선원 선원장 혜광 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이규민 조계종 정무특별보좌관, 김상기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 등이 참석했다.

사찰음식 전법단은 선재사찰음식문화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수강하고, 6개월 이상 연구 과정을 마친 스님 40명과 재가자 80명 총 120명으로 구성됐다. 오랜 시간 불교의 식생활 문화를 꾸준히 공부하고 실천해온 이들은 사찰음식을 매개로 올바른 공양문화와 수행 정신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음식에 담긴 자비와 절제, 자연과 생명을 아끼는 태도를 널리 알려 대중이 ‘음식이 곧 수행’이라는 가르침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전법단을 이끄는 선재 스님은 “80년대에 출가해 70세를 넘기고 보니 나에게 음식은 수행이었고 포교의 밑거름이었다”며 “이제는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라, 전법단과 함께 ‘온 우주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부처님의 정신을 알려나가는 데 마음을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법단 회장 법정 스님은 “우리는 종종 배움을 미루면서 기회를 놓치고 산다. 이제는 이 기회를 움켜쥘 때”라며 “선재 스님이 걸어온 길을 따라 음식에 부처님 법을 함께 얹어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법단은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400만원을 전국비구니회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전법단 출범을 축하하는 축사도 이어졌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앞으로도 대중에게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행복한지’ 알리는 데 역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30년간 한결같이 사찰음식 외길을 걸어온 선재 스님과 전법단의 음식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을 대신해 사무국장 본연 스님도 “사찰음식이 불교의 것만이 아니라 한국의 것, 나아가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음식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불교계 영남 산불 피해 돕기 이어져

진각종 · 진흥원 · 대각회 · BTN 등
각계서 아름다운동행 통해 전달
태고종, 4월 16일까지 모금운동


태고종은 4월 7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린 전국교구종무원 국장 연수교육에서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자비모연 행사를 진행했다.

화마가 할퀴고 간 영남지역의 이재민과 문화유산 복구를 위한 기금 모연이 이어지고 있다.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4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 지원 긴급 모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마음을 내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종단들이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해나갈 수 있길 서원했다. 능원 정사는 “기후 위기로 인한 사건 사고는 우리 모두의 공통과제”라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대한불교진흥원도 3000만원을 전달했다. 신진욱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피해 사찰과 이재민의 회복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면서 “청정도량이 하루빨리 복원돼 스님들의 수행정진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대각회(이사장 장산 스님)는 4월 9일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1000만원을 기탁했다.

대각회 이사장 장산 스님은 “종단 현안이 많고 나라도 어수선한데, 원장 스님께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면서 “사찰과 이재민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마음을 냈다”고 말했다.

같은 날 BTN불교TV(사장 구본일)도 진우 스님에게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 지원 긴급 모금 5억원을 전달했다.

구본일 사장은 “모금 방송을 본 한 불자는 기도할 때 마다 모은 돈이라며 통장 전액을 기부했고 전국 각지에서 자비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며 “추후에도 피해 복구 모금 생방송을 진행하여 재해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태고종은 종단적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태고종은 4월 7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린 전국교구종무원 국장 연수교육에서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자비모연 행사를 진행했다. 태고종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4월 16일까지 10일간 각 시도교구 종무원별로 ‘경상지역 산불 피해 돕기 성금’ 모연을 진행한다.

상진 스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다. 작지만 진실한 정성,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 괴로움에 공감하는 한 줌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 임은호 기자

“사찰림 임도 개설·이격 공간 조성 필요”

진우 스님, 임상섭 산림청장에
“산불 진압 애써준 산림청에 감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현장에서 힘쓴 산림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찰림 구역 임도 개설과 이격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진우 스님은 4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임상섭 산림청장의 예방을 받았다. 〈사진〉 진우 스님은 “최근 영남지역 산불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준 산림청과 소방청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사찰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불교계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섭 청장은 “이번 산불로 국민들뿐 아니라 사찰과 사찰림의 피해가 컸다”면서 “국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피해가 커 송구하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이번 산불을 겪으며 사찰과 산림과 이격 거리와 임도 개설 등의 중요성을 새삼 경험했다”면서 “법을 개정하든,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청장은 “사찰과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국가유산청이 함께 협의해야 하는 일이기에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번 건은 특수한 상황임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은호 기자

진우 스님, 경찰불자에 “애썼다” 격려

이선래 경찰청 불자회장 등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4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선래 경찰청 불자회장(경찰청 대테러위기과장)의 예방을 받고 “탄핵 정국과 대형 산불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애썼다”며 경찰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최근 대형 산불과 탄핵 선고 관련 집회 등으로 국가적으로 고난이 있었지만, 경찰들의 안전 유지로 큰 사고 없이 마무리 돼가고 있다”면서 “비교적 안정을 찾는 분위기여서 다행이다. 국민 스스로 극복하는 힘이 있으니 우리 국민을 믿어보자”고 말했다.

이선래 회장은 “조계사와 총무원청사 주변이 한동안 시위로 시끄러웠을텐데 죄송한 마음”이라며 “경내에 큰 피해가 없으니, 부처님 가피 덕분”이라고 답했다.

임은호 기자



雨中 가피 속 ‘1만 6천 연등’ 동국대 불 밝히다

우중(雨中) 가피 속 1만 6000여 연등이 동국대를 불 밝혔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4월 9일 교내 팔정도 광장에서 ‘불기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에서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점등 버튼을 누르며 캠퍼스에 1만 6000연등에 불을 밝혔다. 돈관 스님과 윤재웅 동국대 총장, 학생 대표들은 불 밝힌 연등에 소원지를 달며 동국발전과 불교중흥을 서원했다.

신중일 기자

봉행

서각사 (참선 염불선원) 복장 점안 및 개원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하는 꽃피는 계절을 맞이하여 불자님들께 도손 모아 합장 인사올립니다.
산승은 (사)한국불교약사회 총재 (사)한국효문화실천회
회장 대연각사(아미선원) 회주 진원 불일 승려입니다.
산승은 시절 인연따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북정 앞 백마강이 유유히 흐르는 도심속에
새롭게 탄생하는 부처님의 전법 전당이 되어질 서각사(참선 염불선원)을
복장 점안 및 개원법회 알리고자 초청장을 전해 드립니다.
산승은 3년간의 불사 끝에 여러 대덕 큰스님들을 증명 법사로 모시고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미륵존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보살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포대화상 복장 점안 및 개원식 법회를 봉행 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은 동참하시어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으시고 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일시: 불기2569년 양력 4월25일 복장 ♠

❖ 본 행사 불기2569년 양력 4월26일 토요일 오전 ❖

■ 1부: 8시~9시 식전행사 (축하공연)
■ 2부: 9시~11시 점인 및 불공 천도법회
■ 3부: 11시~12시 증명법사 대한불교 조계종 암도 큰스님 법문

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북로65 하성빌딩(3층) 서각사(참선 염불선원)

☎문의 : 041)835-3934, 010-7174-1711 서각사(참선 염불선원) 선원장 진원 불일스님 직통

♠주최: (사)한국불교약사회 총재 (사)한국효문화실천회 회장 ♠주관: 대연각사(아미선원) ♠후원: BTN 불교방송 특집방송 유튜브 방송 불일TV선명상 호국불교방송 세계일화

가야문화 인도 기원과 불교문화 연관 조명

(사)가야문화진흥원, 제10회 국제학술대회 성료

4월 6일, 자현 스님 기조발제
'가야불교의 전래 경로' 고찰
쿠마르 학장은 파사석탑 주목
"인도 · 가야 간 문화교류 흔적"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이 4월 6일 부산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개최한 '제10회 가야문화진흥 국제학술대회'에서 자현 스님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고대 가야문화의 인도 기원성과 불교문화의 연관성을 조명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해공 스님)은 4월 6일 부산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제10회 가야문화진흥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가야문화의 역사적 가치와 국제적 의미를 되새기고, 동아시아 문화교류사 속 가야의 역할을 학문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에는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해공 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총무국장 대방 스님, 교무국장 석산 스님,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 혜진 스님, 가야문화진흥원 전 이사장 도명 스님, 초대 이사장 인해 스님 등 승가 내빈과 문정수 전 부산시장, 양맹준 전 부산박물관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조발제는 자현 스님(한국불교학회 회장)이 맡아 가야불교의 전래 경로와 역사적 의미를 심도 있게 고찰했다. 자현 스님은 "한국불교의 전래는 단순히 중국을 통한 북방 경로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가야를 중심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와 초원 루트(유목 루트)를 통한 독자적인 불교 전래 경로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국유사〉에 전하는 허황옥 설화와 파사석탑, 그리고 신라 진흥왕 대에 인도에서 전해진 재료로 조성한 황룡사 장육존상 등의 사례를 들어 "인도와 가야, 신라를 잇는 직접적인 불교 해상 교류의 실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중심의 불교사 해석에서 벗어나, 가야가 동아시아 불교문화의 또 다른 교차점이자 인도와 한국을 잇는 중요한 매개였음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는 쿠마르 학장(인도 뉴델리대)이 맡아, '파사석탑에 내재된 인도 예술적 요소'를 발표했다. 쿠마르 학장은 "파사석탑은 스투파 형식의 구조와 조형 상징을 지니고 있으며, 허황옥 설화와 함께 인도와 가야 간 실제 문화교류의 흔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탑에 나타난 연꽃, 트리라트나(삼보), 쌍어문 등 인도 불교미술의 대표 상징 요소들을 근거로 들며 "한국 불교문화의 기원을 중국 중심이 아닌 인도와의 직접적 연결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가야의 복식문화, 일본과의 고대 교류, 언어와 불교문화의 연관성 등 가야문화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문광희 동의대 명예교수는 가야의 '변(弁)'을 고대 머리 장식 문화의 원형으로 보고, 후대 금관으로 이어졌다는 복식사적 해석을 내놓았다. 히로세 부산대박물관 연구위원은 일본 규슈 지역의 가야계 유물들을 통해 한일 간 고대 교류 양상을 설명했다. 또 능현 스님(아리랑문화진흥원)은 범어와 타밀어, 한국어의 유사성을 들어 불교문화가 언어와 민속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앞서 해공 스님은 개회사에서 "한반도 최초의 불교 전래와 더불어 가야문화는 뛰어난 예술성과 독창성을 지닌 문화로, 우리 민족 자긍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가야문화진흥원은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금정산 산그리메, 金井〉 발간

금정산 · 범어사 중심 심층 고찰
역사 · 문화 정체성 학술적 조명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은 부산광역시 사립박물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금정산과 범어사, 그리고 범어사가 위치한 부산 금정구 지역을 조명한 학술도록 〈금정산 산그리메, 금정(金井)〉을 최근 발간했다.〈사진〉

이번 도록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금정산 산그리메, 金井' 특별전과 사진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정산의 유형, 무형, 자연유산과 금정구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학술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지역사 전문가들의 논고도 담아 금정구를 가깝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정산과 범어사를 중심으로 '금정구'라는 지역 공간을 심층적으로 다룬 점도 눈에 띈다. 금정산 호국사찰로서 범어사의 창건과 승영사찰 국청사·해월사의 역사, 조선시대 동래부사와 고승들의 시문, 금정산성 관련 기록 등 금정구 일대에 얽힌 다양한 자료가 담겼다. 유청길 금정산성막걸리 대표가 소장한 1970년대 산성마을 사진과 사진가 문진우의 작품도 함께 수록돼 시각적 몰입도를 높였다.

정오 스님은 발간사에서 "이번 도록이 금정산을 단순한 '산'이 아닌, 삶이 흐르는 지역 공간 '금정구'로서 바라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선조들이 살아왔고 우리가 살아가며 후손들이 살아갈 금정산과 금정구의 역사·문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 사립박물관 지원사업은 문화유산 보존과 시민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 사업이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2018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불교문화는 물론 부산 지역사를 다룬 도록을 꾸준히 발간해 왔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어린이용 그림책도 함께 선보이며 지역의 역사·문화를 세대 간에 자연스럽게 잇고 있다.

한편, 함께 발간된 그림책 〈금빛물고기의 선물〉은 〈삼국유사〉를 모티브로 한 첫 그림책 〈금빛물고기의 비밀〉에 이은 두 번째 이야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회향···"사회 밝히는 주인공 되길"

30회 20회 10회 성만자 65명
영축장학금 스님 44명 3560만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4월 2~4일 경내 금강계단에서 '불기 2569년 영축총림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하고, 흔들림 없는 수행정진을 다짐했다.〈사진〉

이번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 전계대화상은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 갈마아사리는 전 통도사 강주 현진 스님, 교수아사리는 통도사 강주 인해 스님이 각각 맡아 삼화상을 구성했다. 칠증사인 존증아사리에는 보탑천진, 노암법운, 보장영일, 심산법미, 고담종현, 혜림만초, 무문도암 스님이 함께해 계단을 증명했다.

3000여 명의 불자가 동참한 회향식은 불공을 시작으로 △대종 5타 △개식 △삼보 예경 △거향찬 △삼사칠증사 등단 △영축장학금 수여 △보살계 성만패 및 기념메달 증정 △계첩 수여 △주지 스님 인사말 △수계의식 △연비 △사리탑돌이 △회향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사회가 어려울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인 계율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많은 이들이 인연 따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법회를 계기로 불자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신심과 발심을 실천하며 이 사회를 더욱 밝게 비추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법문했다.

보살계 성만 기념패는 올해 30회 성만자 4명, 25회 성만자 5명이 각각 받았다. 기념 메달은 20회 16명, 15회 12명, 10회 28명 등 총 65명의 불자가 수상했다.

이날 학업과 연구를 이어가는 스님에게 영축장학금도 전달됐다.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10명, 학사과정 3명, 승가대학원 및 율원학림 24명, 승가대학 4명 등 44명의 스님에게 총 3560만원이 지원됐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이경순 일념장학회 제3대 이사장 취임

"청년 불자 양성에 지원 최선"
대학생 10명에 장학금도 전달



미래불교 인재 양성에 힘써온 재단법인 일념장학회가 새로운 이사장 취임으로 30년 전통의 장학사업에 새바람을 예고했다.

일념장학회는 이경순 영광문화예술원 원장을 제3대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4월 8일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 묘광선원에서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사진〉

이경순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1995년 불심 돈독한 선배 불자님들의 원력으로 시작된 일념장학회가 30여 년간 보시 공덕을 실천해 온 전통을 이어, 앞으로도 청년 불자들이 학업과 신행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초석을 다지고 자비심으로 장학회의 틀을 세워주신 선배 도반님들의 뜻을 잊지 않고, 전 임원들과 함께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장학사업이 잠시 위축됐지만, 지역 불자 대학생들이 불법을 공부하며 훌륭한 불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념장학회 지원금 800만원에 대불련 부산지부 지도법사 안도 스님의 200만원을 더해 대불련 부산지부 소속 대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일념장학회는 영축총림 통도사의 수행가풍을 세운 경봉 선사를 찾아 불법을 공부하던 11명의 여성 불자들이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뜻을 모아 설립한 단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설악산 신흥사, 불기 2569년 봉축 점등

4월 4일, 속초광장···800명 동참
산불 피해 위로 · 속초 안녕 기원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지혜 스님)는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4일 속초 속초광장(구 소방서 앞)에서 봉축 점등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을 비롯해 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이병선 속초시장,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8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는 영남 산불 피해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이재민들의 조속한 회복과 속초시 발전과 시민 안녕을 함께 기원했다.

낙산사 주지 일념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오늘 점등에 임하는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굳건한 서원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은 법문에서 "오늘 우리가 봉축탑에 불을 밝히는 것은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불법에 의지하지 않고 외부에 기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점등식을 통해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열반으로 가는 길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용인시불교사암聯, 용인시와 간담회 개최

4월 4일, 용인시청서 일정 공유



새 회장단 구성을 완료한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호 스님, 대각사 주지)가 용인시와 첫 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행사 계획을 공유했다.〈사진〉

4월 4일 용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용인시사암연합회 고문 자광 대종사(조계종 원로의장)와 회장 정호 스님, 감사 월장 스님(백인사 주지) 등 임원진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 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 주요 사찰 스님과 현태주 용인불교신도회장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상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호 스님의 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시민들에게 삶의 휴식처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관내 사암 스님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라고 인사했다.

자광 대종사는 격려사에서 "개발과 성장을 거듭하는 용인시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종교, 특히 불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불교와 사찰이 130만 용인 시민의 삶 속에서 따뜻한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호 스님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불교의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고, 용인시와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자비암, 임진왜란 호국영령 위령대재

4월 6일 경내 특설무대서



태고종 자비암(주지 자관 스님)이 4월 6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22회 임진왜란 호국영령 위령대재 및 관세음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는 자비암 신도회의 후원과 주지 스님의 원력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스님들과 신도들이 동참해 호국영령의 극락왕생과 부산 시민들의 평안을 기원했다.

자비암은 임진왜란 당시 순국한 호국영령들을 기리는 위령재를 매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로 22회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고통받은 이들을 추모하고, 국가의 안녕을 함께 발원하는 자리였다.

주지 자관 스님은 "산불로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며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위령재를 봉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위령대재와 함께 관음전 관세음보살 점안식도 진행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금정구가족센터 확장···돌봄 거점 도약

4월 3일, 확장 개소식 개최



부산 금정구가족센터(센터장 김수현·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장)가 4월 3일 센터 3층 교육실에서 확장 개소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확장 개소는 임산부, 이혼위기가정, 돌봄 공백 가정 등을 포용하고 돌봄의 중심 역할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이다.

행사에는 김수현 센터장을 비롯해 윤일현 금정구청장, 원명숙 금정구의회 의원, 정윤철·김태연·양달막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수현 센터장은 "아이 돌봄, 다문화, 위기가정 지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따뜻한 돌봄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 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행복은 부나 지위가 아닌 건강한 가족에서 비롯된다"며 "금정구가족센터가 지역 가정의 화합과 따뜻한 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전등사 '게이트볼 대회'…"어르신 건강 책임"

올해로 20회 맞은 '장수' 대회
64개 팀 400여 명 선수 출전해
무학팀 우승 · 덕포팀 준우승 차지
무료 한방진료 · 발마사지 부스도

강화=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이 제20회 전등사기 게이트볼 대회서 시타를 하고 있다.

"내가 우리 동네 게이트볼 1등이야! 잘 봐, 들어간다."

차분히 스윙 자세를 잡는 어르신의 눈빛에 긴장과 설렘이 가득하다. 한참 거리와 각도를 재던 끝에 채를 휘두르는 순간, 공이 게이트를 정확히 통과한다.

"첫 득점이요!" 심판의 외침에 주변에선 환호와 박수가 쏟아진다. 어르신도 참았던 숨을 내쉬고 얼굴엔 미소가 번진다.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가 4월 8일 강화 길상면 공설운동장에서 '제20회 전등사기 강화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전등사가 지역 어르신들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게이트볼 대회는 올해로 20회를 맞아 그 의미를 더했다.

대회 개막식에는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과 화개사 주지 원준 스님, 박용철 강화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 유춘규 강화군게이트볼협회장, 윤재상 인천시의원 등 500여 명 참석했다.

여암 스님은"어르신들이 외로우면 방에만 계시게 되고 자연스레 체력도 떨어지게 된다"며 "게이트볼은 공을 게이트에 넣기 위해 집중해야 하기에 건강은 물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이날만큼은 그라운드에서 함께 어울려 노는 잔칫날이 되길 바란다"며 "전등사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과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선수 어르신들은 대회 규칙을 준수하고 심판의 판정을 존중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각 6명으로 구성된 64개 팀, 총 384명의 어르신이 경기에 참가해 실력을 겨룬 끝에 교동 무학팀이 우승, 화도 덕포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전등사는 참가자들에게 기념모자 1000개를 선물했고, 전등사 신도회에서는 국밥, 어묵탕, 부침개, 떡, 과일 등을 정성껏 준비해 점심으로 대접했다. 경기장 한편에서는 동국대 일산병원의 무료 한방진료, 주재희 약손봉사단의 발마사지, 강화소방서의 안전교육 부스를 운영해 어르신들의 편의를 세심히 살폈다.

참가 어르신들은 전등사의 게이트볼 대회가 "매년 기다려지는 봄 축제"라고 평가했다. 1회 대회부터 꾸준히 참가해 온 이봉섭(85) 어르신은 "경기 결과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얼굴 보고 웃는 게 참 반갑다. 좋은 추억 만들어준 전등사에 고맙다"고 말했다.

내소사 선대조사·해안 선사 원력 기리다

선대조사, 해안 선사 추모제
진성 스님 "수행 정진 다짐"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 스님)가 해안 대선사 51주기인 4월 4일 경내 부도전과 대웅전에서 선대조사 다례재와 추모제를 봉행했다.〈사진〉

조계종 초대 어장 원명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선대조사 다례재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조사스님들의 수행 정신과 전통 선맥을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다례재에는 내소사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원로 범여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 참당선원장 법만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해안문도 스님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내소사가 수행 도량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조사스님들의 가르침과 원력 덕분"이라며 "그동안 주지 소임을 맡아 최선을 다했지만 많이 부족했다. 임기 후에도 역대 조사스님들과 노스


님의 추모재를 모실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교구장 스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사부대중은 "오늘 다례재를 문도 화합과 승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정진의 토대로 삼겠다"며 "불조의 혜명을 더욱 굳건히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해안 스님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1914년 내소사에서 만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1917년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32년 계명학원을 설립해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했으며, 1936년 금산사 주지를 역임하고 1969년 불교 전등회 대종사로 추대됐다. 1974년 세수 74세, 법랍 57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茶시배지 쌍계사, '차문화축전' 연다

4월 17~20일 경내 일원

쌍계총림 하동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는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2025 쌍계사 차문화대축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쌍계사가 주최하고 (사)진감초의다맥한국선다회가 주관한다.

쌍계사는 통일신라 성덕왕 22년(723)에 개산하고 문성왕 2년(840)에 창건된 천년고찰로, 신라 흥덕왕 3년(828) 대렴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차나무 종자를 처음 심은 차 시배지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한국 차문화의 정통성을 조명하기 위해 매년 차문화대축전을 개최하고 있다.

대축전은 △4월 17일 차나무 시배지에서의 '개원채다' △18일 괘불전 및 팔영루에서의 다도의례 △19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茶-디카시로 만나다' △20일 차박물관 특설무대에서의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K-어울림 축제'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신라·고려·조선시대의 전통 다도 시연과 선차 시현, 두리차회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펼쳐진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소' 내장사 대웅전 복원 본격화

4월 6일 상량식…올해 말 준공

2021년 3월 방화로 또다시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던 정읍 내장사 대웅전 복원 불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정읍 내장사(주지 대원 스님)는 4월 6일 복원 불사가 진행 중인 대웅보전 건립 부지에서 상량식을 봉행했다.〈사진〉

대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화마를 이겨내고 다시 세워지는 이 도량에서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해 대웅전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내장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팔작지붕 형태로 142.56㎡(43.2평) 규모로 복원될 예정이며,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덕사, 만공선사 탄신 154주년 다례재

4월 4일 경내서…〈경허록〉 〈만공법어집〉 봉정

예산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4월 4일 근현대 한국불교의 큰 선지식 만공선사의 탄신 154주년을 맞아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수덕사는 〈경허록〉과 〈만공법어집〉 봉정식도 함께 거행했다.



다례재에는 전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대중들은 산내 암자 금선대, 만공탑 등을 차례로 순례하며 만공선사의 삶과 가르침을 기렸다.

법문에 나선 설정 스님은 "만공선사의 가르침과 수행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되새기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스님을 가장 잘 모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김해 불인사, 만남·화합 토크콘서트

4월 6일 만남중창단 초청

경남 김해 불인사(주지 송산 스님)가 4월 6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만남·화합 토크콘서트'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단 성직자들로 구성된 '만남중창단'을 초청해 화합의 메시지를 나누는 자리로 꾸며졌다.



주지 송산 스님은 환영사에서 "봄 향기 가득한 날, 인연 따라 함께한 이 자리가 모두에게 향기롭고 따뜻한 기억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로 만나고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화합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마이산 탑사, 봄 산신대재 봉행

4월 6일 불교전통방식으로

신비의 돌탑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명승으로 지정된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 스님)가 을사년 봄 마이산 산신대재를 봉행했다.〈사진〉



4월 6일 탑사 경내에 마련된 특별법단에서 불교 전통방식으로 열린 산신대재는 전북 무형문화유산 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여법하게 봉행됐다.

주지 진성 스님은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되는 산신대재는 단순한 의식을 넘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불교의 지혜가 담긴 전통"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안 승천사, 진연 스님 추모다례

4월 6일 대웅전서

천안 승천사(주지 원공 스님)는 4월 6일 경내 대웅전에서 일학당 진연 스님의 열반 19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다례재는 진연 스님의 수행정신과 가르침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상좌인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스님의 수행정신을 본받아 정진하자"며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은사 일학당 진연 스님의 다례재를 찾아주신 문도 스님들께 감사드린다. 정성껏 준비해 주신 주지스님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통도사 · 양산불교聯, 봉축탑 점등

4월 7일 양산대종 앞서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와 양산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동진 스님)는 4월 7일 양산대종 앞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을 봉행했다.〈사진〉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나라 안팎으로 아픔이 많고 여러 시련도 있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정진해야 한다"라며 "이 등불이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의 빛이, 외로운 이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양산 시민 모두에게 닿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 봉축탑 점등

5.18광장에 수마노석탑 점등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4월 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마당에서 '광주 봉축탑 점등식'을 개최하고 한지로 재현한 수마노석탑에 봉축의 등불을 밝혔다.〈사진〉 수마노석탑은 강원도 정암사에 위치한 고려시대 모전석탑으로 사리신앙의 상징이자 불교적 염원을 담은 국보 문화재다.

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봉축사에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자비의 빛으로 오셨다"며 "오늘 우리가 밝히는 이 등불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례불교연합회, 봉축탑 점등

문수보살 형상 탑등…군민 안녕 기원



구례불교연합회(회장 덕문 스님, 화엄사 주지)는 4월 5일 화엄사 입구 삼거리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사진〉

올해 봉축탑은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상을 전통 한지로 재현한 것으로, 구례군과 지역민들에게 지혜와 복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구례 군민들의 지극정성으로 밝히게 된 이 등불은 어리석음을 깨우는 지혜의 등불이자, 세상의 불안을 따뜻하게 감싸는 공감과 연대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 선운사, 봉축탑 점등

4월 6일 선운교육문화회관서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4월 6일 고창 선운교육문화회관 광장에서 자비광명의 불을 밝히는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축사에서 "연등은 평화와 화합, 위로와 나눔을 상징한다. 이웃 모두가 이 등을 보고 위안을 얻고 희망을 찾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자비와 지혜의 빛이 온 세상으로 퍼져, 고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고, 삶에 지친 이들에게는 위안의 빛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원불교연합회, 봉축탑 점등

4월 5일 시청 앞 광장서



창원불교연합회(회장 법안 스님, 성주사 주지)는 4월 5일 창원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하고 시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다.〈사진〉

법안 스님은 봉행사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지혜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며 "오늘 우리가 밝히는 이 등불은 자신의 내면을 비추고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지혜의 빛"이라고 말했다.

창원불교연합회는 봉축탑 점등을 시작으로 지역 곳곳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와 포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붓의 신선’이 그려낸 부처님을 만나다

불교중앙박물관 ‘호선 의겸’展…6월 29일까지

조선 畵師 의겸 스님 조명
국보 ‘해인사 영산회상도’
지정 이후 첫 서울 나들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592년 시작된 임진왜란과 이어진 정유재란의 7년 전쟁으로 조선의 국토는 초토화되었고, 사찰 역시 비켜가지 못했다. 많은 사찰이 전화(戰火)의 피해를 입었고, 전각과 불상, 불화들이 소실됐다.

전쟁 이후 불교계는 전국적인 불사를 추진하며 산문을 일으켜 세웠다. 당시 불사를 담당한 주역들이 화승(畵僧), 불모(佛母·조각승) 등 승려 장인(僧匠)들이다.

이중 의겸 스님(생몰 미상)은 1713년부터 1757년까지 40여 년간 호남과 지리산 일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18세기 전반 조계산문(曹溪山門)의 대표적인 화승이다. 그는 통도사의 임한파(任閑派)와 더불어 18세기 불교화단의 양대 산맥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록에 따르면 의겸 스님은 ‘붓의 신선(毫仙)’ ‘존경받는 어른(尊宿)’ ‘크고 올바른 모범(大正經)’이라는 존칭으로 불리며 단순 장인을 넘어 당시 교단에서 존경받는 수행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를 대표하는 화사(畵師)이자 수행자인 의겸 스님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은 4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박물관 제1·2전시실에서 기획전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07년 개관한 불교중앙박물관이 승려 장인을 조명하는 첫 전시여서 의미가 깊다.

기획전에는 의겸 스님의 뛰어난 예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성보유산 총 20건 47점(국보 3건, 보물 7건, 유형 1건)이 전시된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호선 의겸’ 기획전에 전시되는 국보 ‘해인사 영산회상도’. 처음으로 산문을 나와 서울서 전시된다.

특히 최근 학술·예술·종교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된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와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는 국보 지정 이후 첫 서울 전시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는 4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는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박물관 전시실에서 각각 만나 볼 수 있다.

전시는 △험난한 파도를 거쳐 친견한 관음보살님 △불사(佛事)를 이루다 △새로운 도상을 받아들이다 △수화사(首畵師) 의겸 스님 △불화에 담긴 불교의식 △의겸 스님을 따른 스님들 △전각에 구현한 부처님 세계로 구성된다.

조선시대 관음보살도의 정수로 손꼽히는 ‘여수 흥국사 관음보살도(보물)’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관음보살도(보물)’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것도 이번 전시회의 주요한 관람 포인트 중 하나다.

전시 대미는 순천 송광사 불조전의 ‘오십삼불회도’가 장식한다. 의겸 스님이 조성한 ‘오십삼불회도’는 중앙의 7불탱화(七佛幀畫)를 중심으로 하여 53불도가 좌우 6폭으로 나뉘어 그려져 있는 불화다. 불교중앙박물관 전시공간 3면을 ‘오십삼불회도’를 전시하고 중앙에 죽비와 좌복을 둬 선명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의겸 스님 기획전을 시작으로 화승, 조각승들을 조명하는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내년에는 빼어난 작품을 남긴 조각승을 주제로 기획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의겸 스님의 제자들, 그 계맥들을 조명하는 전시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젊은 세대가 주목하는 ‘K-불교’와 ‘힙한 불교’의 근간에는 한국불교를 꽃피우는 데에 이바지하였던 화사 스님들의 구도 열정과 예술혼이 담겨있다”면서 “관람객들이 의겸 스님의 예술적 정수를 통해 마음의 쉼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불교의 달, 불교학계 학술대회 ‘풍성’

조계종이 부처님오신날과 연등회가 있는 4~5월을 ‘불교의 달’로 지정한 가운데, 불교학계에서도 사찰 문화와 역사, 한국불교 전법포교 방안 등을 조명하는 학술행사를 잇달아 개최한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와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 스님)은 4월 18일 오후 1시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동산 대종사 열반 60주기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근현대 불교에서의 범어사 위상’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세미나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의 기조강연으로 시작을 알리며,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 근현대기 범어사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불교정화운동, 교육불사 등을 조명한다.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은 ‘백용성 스님 전법과 동산 선사’를,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장은 ‘선학원과 범어사 역할’을,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경허 성우와 범어사 선풍의 진작’을 각각 발표한다.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동산 대종사의 불교정화운동 참여 행적과 의의’를, 김은영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는 ‘동국대와 범어사-허영호와 김법린’을 조명한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특별발표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동산 대종사의 유묵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리산 대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한국불교학회**(학회장 자현 스님)와 공동으로 4월 25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지리산 대화엄사의 찬란한 역사문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1부 ‘대화엄사를 세우다’, 2부 ‘호남불교의 중심 구례 지리산 대화엄사’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구례 지리산 대화엄사의 산문을 연 연기법사(자현 스님) △근현대 화엄사의 기틀을 세운 도광 큰스님(전 중앙승가대 대학원장 종석 스님) △근현대 화엄사 화합의 정신을 세운 도천 큰스님(김우영 전 전주교대 총장)가 발표된다.

범어사 · 대각사상연구원
근현대 범어사 위상 조명
화엄사 · 한국불교학회
화엄사 역사 문화 살펴
교불련 등 세미나 잇달아

2부에서는 △한국불교의 적멸당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의 의미 분석(한국불교학회 총무이사 무진 스님) △호남 차문화의 시원 구례 지리산 대화엄사(문승옥 지리산다문화 예술원장)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대전대 교수)는 4월 23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0차 불교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만불교에서 구하는 한국불교 전법·포교의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포럼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의 ‘대만불교에서 배우는 불교의 세계화 비전’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000년대 대만불교 전법포교의 변화 특징(곽뢰, 동국대) △대한 신흥 사대종문의 전법포교 활동의 현주소(양정연, 한림대) △대만불교 전통 종단 및 비구니회의 활동(김응철, 중앙승가대)가 주제 발표된다.

이밖에도 **인제대 화쟁인문학연구소**(소장 박태원·인제대 석좌교수)는 4월 24일 오후 1시 교내 본관 2층 강당에서 ‘화쟁불교학의 수립’을 주제로 1차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는 박태원 인제대 화쟁인문학연구소장의 ‘화쟁불교학의 수립 근거와 전망’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우동필 전남대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의 ‘초기불교의 화쟁불교학적 탐구’, 김현구 전남대 학술연구교수의 ‘대승불교의 화쟁불교학적 탐구’, 김태수 전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교수의 ‘원효사상의 화쟁불교학적 탐구’가 발표된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교문화예술연구소(소장 차차석)는 4월 25일 오후 1시 30분 교내 호운관에서 ‘실버사회와 불교의 만남’을 주제로 제25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염지혜 중원대 교수가 ‘실버사회의 도래와 불교계의 대응’, 황정일 박사(동국대)가 ‘늙음에 대한 불교적 성찰’, 이명호 박사(경희대)가 ‘불교계 노인요양시설의 현황과 전망’, 임시연 만다라심리상담연구소장이 ‘노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심리 치유 고찰’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신중일 기자

“33관음성지 순례, 여행 넘어선 수행”

문화사업단, 2025년 1차 회향식…85명 증서 받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4월 7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2025년 제1차 33관음성지 회향식’을 개최했다.

이날 회향식에서 문화사업단은 올해 3월까지 관음성지 33곳의 순례를 완료한 85명에게 회향증서를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회향증서를 받은 참가자들은 문화사업단이 기획·발간한 순례책자 ‘한국 33관음성지’에 기재된 사찰 33곳을 참배한 뒤 각 사찰에서 제공하는 고유의 도장을 모두 찍어 사업단에 제출하며 순례를 인증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사업국장 하원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33관음성지 순례는 불교가 문화관광 분야에서 사회 공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체험프로그램”이라며 “더 많은 이들이 33관음성지 순례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순례자들을 대표해 회향 소감을 전한 정만수 씨는 “33관음성지 순례는 여행을 넘어 수행이 됐다”고 밝혔다.

선운사 신도인 정 씨는 도반 8명과 함께 지난해 3월 28일 태화산 마곡사를 시작으로 8차에 걸쳐 전국 관음성지를 순례했다. 특히 영월 법흥사 적멸보궁이 인상 깊었다고 밝힌 정 씨는 “33관음성지 순례는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몸소 느끼는 계기이자 불자로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수행이었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4월 7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2025년 제1차 33관음성지 회향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회향증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찬불가 포교 재시동…대중화 나서겠습니다”

인터뷰 박성규 한국불교음악인협회 8대 회장

올해 1월 1일 취임…2년 임기
취임식 대신 3월 30일 공연
운문 스님, 김동환 교수 추모
전문가 합창단 ‘BSE’ 창단해

“코로나로 협회 활동이 침체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 포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젊어진 찬불가로 대중을 사로잡겠습니다.”

박성규 한국불교음악인협회 제8대 회장〈사진〉은 4월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장 취임 소감으로 이 같이 밝히고 말머리를 풀었다. 박 회장은 지난 1월 1일 협회원들의 추대로 한국불교음악인협회 제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박 회장은 취임식 대신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던 협회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공연을 추진했다. 3월 30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역사문화공연장에서 열린 한국불교음악인협회 정기공연은 찬불가 제작과 보급에 힘썼던 운문 스님(2018년 원적)과 김동환 중앙대 명예교수(2020년 별세)의 추모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영원한 기억, 빛나는 울림’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에는 대구 보림사 아마타 합창단, 서울 메타소리 합창단과 불교솔리스트앙상블(이하 BSE)의 공연이 진행됐다. 이들 합창단들은 대행 선사의 선법가 ‘공심공체 둘 아닌 노래’ ‘임의 소식’과 운문 스님의 찬불가 ‘예불가’ ‘애착을 끊으라’ 등을 공연했다.



이날 첫 공연을 한 ‘BSE’는 불교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문가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현재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 성악가들 44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10월 중 창단 기념 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좋은 노래 한 곡이 종교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협회에도 실용음악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불교에도 이런 노래가 있어’라고 놀랄 정도의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음악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공연 레퍼토리에도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협회의 중흥을 꿈꾸는 박 회장은 “발로 뛰는 회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비영리단체인 협회의 법인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회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찬불가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 안정화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종단 지도자스님들과 전국 사찰 주지스님들을 만나 불교음악 발전에 대한 청사진과 협회의 활동을 적극 홍보하려고 합니다. 또한 대한불교진흥원의 단체 지원 공모 사업 등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중일 기자

싯다르타, 금빛으로 피어나다

토포하우스 서울 · 대구
이해기 작가 개인전 개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일생을 금니로 그려낸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토포하우스 서울과 대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평생을 금빛 불모(佛母)로 살아온 이해기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금빛으로 피어난 싯다르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작가가 40대에 전념해 완성한 ‘부처님의 일생’ 시리즈와 부처님의 뒷모습에서 스스로 자기자신과 만나는 ‘나를 만나다(Looking mysel)’시리즈, 그리고 ‘색즉시공(色卽是空)’,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등의 불교 사상을 꽃과 해마, 나비 등을 통해 나타낸 근작 등을 전시한다.



이해기 作 천상천하유아독존, 48.2x45.2cm, 감지에 금, 2001년.

서울 전시는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며, 대구 전시는 5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다.

신중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9~4/15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꽃비 오니 봄날이다	동은	조계종출판사	6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정토
2	초역 부처의 말	코이케	포레스트북스	7	법정스님 인생응원가	정찬주	다연
3	33관음 컬러링북	정기란	담앤북스	8	병원 명상	김종우외	담앤북스
4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108 필사 명상	법상	조계종출판사	9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	인해, 명오	민족사
5	완전한 깨달음(원각경)	이제열	민족사	10	부처님의 당부	비구보디	사유수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크리스천과 함께 읽는 금강경(양장)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6	디가니까야(1) 길게 설하신 경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2	부처님의 당부:초기경전에서 선별한 지혜의 말씀	비구 보디/등현 감수	사유수	7	불멸(3)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이각	지혜의눈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4	니까야강독2(초기불전006)교학과 수행	각묵,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9	영가천도 법어	청화 큰스님 법문집	광륜출판사
5	불교심리학과 위빠사나수행의 지침서	아날요/이필원 외	명상상담연구원	10	철학으로서의 불교(대원불교학술총서09)	마크 시더리츠	운주사

남지심 작가가 그린 죽음과 생명의 실상



인간은 죽지 않는다(전 3권)
남지심 지음
얘기꾼 / 1권 1만6800원
2-1권 · 2-2권 각 1만4800원

연기·윤회의 관점서 바라본 '죽음 이후'의 세계
원력 보살들이 환생해 펼치는 '원생(願生)' 담아
45년 문학 인생 회향…"대승불교 운동 펼쳐지길"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죽음'은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끝내 외면하고 싶은 진실이다. 대표적 불교 작가인 남지심 씨의 신작 〈인간은 죽지 않는다〉(전 3권)는 연기와 윤회의 관점에서 죽음과 생명의 실상을 탐구한 소설이다. 올해로 45년을 맞은 문학 인생을 회향하는 역작이자,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아온 작가의 불교적 해답이다.

남 작가는 1980년 〈솔바람 물결 소리〉로 등단해, 40대 중반의 나이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우담바라〉(전 4권)를 펴냈다. 〈솔바람 물결 소리〉로 불교에 입문한 작가는 〈우담바라〉로 구도의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우담바라〉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다"고 생각해 이후 소설을 쓰지 않던 작가를 다시 책상 앞으로 끌어당긴 건 '죽음'이다.

"70대 중반이 되고 보니 죽음의 문제를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은 삶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 또 하나의 내 삶이잖아요.



등단 45년을 맞아 죽음과 생명의 실상을 그린 소설을 발표한 남지심 작가.

불교 신자인 나는 윤회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꼭 그려보고 싶었고, 그 답이 이 책입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문학작품이 현상계를 다루었다면 이 책은 원력 보살들이 환생해 현실 속에서 그 원력을 펼쳐가는 원생(願生)을 그리고 있다. 1권에서는 주인공이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환한 빛을 따라 중유(中有) 세계에 이르고, 그곳에서 여러 스승을 만나 단계에 맞는 수련을 거쳐 현실 세계로 환생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다. 이어 2권에서는 대학 총장과 기자, 작가 등 저마다의 원력을 품은 보살들이 환생해 법운사와 예경원을 중심으로 '생명의 실상' 공동체를 이루는 이야기가 생동감 있게 그려진다.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고통을 겪는 것은 탐진치(貪瞋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중생계라고 하지요.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인간의 세계입니다. 자기애(自己愛)에 갇혀 있긴 하지만 우리의 근본 마음은 우주 근원을 담고 있으므로, 내 안에서 나를 가두고 있는 자기애를 벗겨내면 우주의 근원과 일치하는 대자유인 곧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려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소설은 인간의 죽음과 그 이후의 상황을 직접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영우 동국대 문예창작과 명예교수는 "이 책은 제목과 내용 모두 소설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상식을 충격한다"며 "인간의 정신적 수행 및 이타적 실천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불교의 윤회와 보현행원 사상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야기로 풀어낸 〈화엄경〉 '십지품'의 변상도라 명명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남 작가는 "죽음과 윤회의 과정을 알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절로 얻게 된다"며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 불자다. 소설에서 우리 삶의 전 과정과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교적 해답을 들려주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작가가 '죽음 이후'를 천착한 것은 '지금 여기'를 잘 살기 위함이기도 하다. 때문에 소설에 '지금 여기'를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모든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존중해야 한다는 '예경제불(禮敬諸佛)'이 그 핵심이다.

"이기심에서 벗어나 내 안의 본성을 환히 보는 자리,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견성(見性)이고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이 수행입니다. 불교문학이란 수행을 통해 부처에 이르는 과정을 글로 쓴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 마지막 소설이 될 〈인간은 죽지 않는다〉가 독자들에게 생명의 실상을 바로 보는 길잡이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스승의 불사를 기록하다



송광사 대웅보전 이렇게 지어졌다
보경 지음
송광사 / 3만5천원

80년대 현호 스님의 송광사 중창불사 과정
상좌 보경 스님이 기록과 사진으로 되살려
"꼼꼼한 불사 기록이 이 시대의 역사"

1980년대 이뤄진 조계총림 송광사의 중창불사 기록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1983년 출가해 은사 현호 스님의 중창불사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보경 스님(송광사 탑전)은 당시 불사와 관련한 기록과 사진 등을 655쪽 분량의 책으로 엮어냈다. "과거의 문화유산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재를 만들어 후대에 남기려는 것"이라는 은사스님의 뜻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다.

〈송광사 대웅보전 이렇게 지어졌다-현호 스님 송광사 제8차 중창불사기〉는 송광사 사보였던 월간 '불일회보'에 실린 글과 사진, 도감 책임을 맡았던 신영훈 대목장의 불사 연재기를 뼈대로 삼고 있다. 여기에 보경 스님이 보고 겪은 일과 소회를 정리한 '손바닥 소설'을 덧붙였다. 단순한 '불사기(記)'를 넘어 은사스님의 일생을 조망하고 송광사의 역사를 기록하겠다는 뜻에서다.

1983년 송광사 주지에 취임한 현호 스님은 곧바로 중흥불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스님은 모연문에서 "한국전쟁으로 도량의 중심부에 있던 크고 작은 건물 26동이 하루아침에 불에 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본사 스님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대웅전 등 몇 채의 건물이 아쉬운 대로 복구되었습니다.〈중략〉 그러나 운집한 대중의 수에 비해 대웅전이 너무 비좁아 조석예불 때나 법회 때 전 대중이 한자리에 모



현호 스님의 상좌 원경 스님(사진 왼쪽)과 보경 스님은 4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980년대 이뤄진 조계총림 송광사의 중창불사 기록을 담은 책 〈송광사 대웅보전 이렇게 지어졌다〉의 출간을 알렸다.



책에는 1980년대에 이뤄진 송광사 제8차 중창불사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진은 당시 대웅보전 기단을 놓는 모습. 사진 제공=송광사

일 수 없는 형편이고 방사가 모자라 수도정진을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발심수행자들을 되돌려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여덟 번째 중창 불사의 이유를 밝혔다.

이후 10년에 걸쳐 이어진 불사의 과정이 400여 쪽에 이르는 글과 250여 장의 사진으로 책에 고스란히 담겼다. 인문학적 관점으로 고찰한 공간과 역사, 일주문과 각각의 전각에 담긴 불교적 의미 등도 정리했다. 여기에 목우가풍 선양을 위한 보조사상연구원 설립, 전법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서울 법련사와 미국 LA 고려사 설립 과정도 짚었다. 보경 스님은 "이러한 대작불사로 송광사가 승보종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그 의미를 짚었다.

보경 스님은 "800년 송광사 산문의 역사 중 1980년대라는 10년의 CT 한 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책의 집필에 임했다"며 "전국의 사찰에서 크고 작은 불사의 기록을 꼼꼼히 남겨둔다면, 훗날 불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호 스님의 상좌 원경 스님(서울 심곡암 주지)은 "은사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일에 힘써준 보경 스님께 문중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이 책이 불교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잊힌 역사 기록하고 기억하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이것이 천태불교의 핵심이다!
천태불교의 이론과 실천
인도불교를 중국불교로 최초로 정착시키고 토착화시킨 천태불교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 전반을 서구 철학자의 안목으로 알기 쉽게 조명한 역작이다!
브룩 지포린 지음/정천구 옮김/520쪽/값 30,000원

불교철학 초심자들을 위한 안내서!
불교철학 길라잡이
2,500여년에 걸친 불교사상의 변천과 전래과정을 추적하여 불교철학의 주요 얼개를 오늘의 언어로 보여주는, 불교의 지적 전통에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해 개론서이다.
이규완 지음/276쪽/값 20,000원

인공지능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
공심이의 비밀일기
자꾸만 AI에 기대는 아이의 모습에 어른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주인공 공심이와 함께 명상여행을 떠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김임천 글 · 그림/216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진우 스님의 〈금강경〉 실천 안내서



진우 스님의 금강경 강설
진우 스님 지음 / 김영사 / 2만9천원

소천 스님 '활공 사상' 계승한 독창적 강설
분별과 집착 벗어나는 구체적 방안 담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거듭 당부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출가 후인 고등학교 1학년 무렵, 한국불교의 실천적 사상가인 소천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숙독했다. 이때 비로소 번민이 멈추는 경험을 했고, 이는 다시 한번 진정으로 출가를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

세월이 흘러 2020년 조계종 교육원장 소임을 맡고 〈금강경 강의〉를 다시 펼쳐 본 스님은 아무런 참고 자료 없이 자기 생각을 덧입혀 나갔다. 〈금강경〉의 핵심을 명확히 드러내면서도 크고 작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일상의 언어로 안내하기 위해서다.

조계종의 소의경전이기도 한 〈금강경〉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혜를 밝히는 경전이지만 그 뜻을 제대로 살피기란 쉽지 않다. 수많은 해설서가 계속 출간되는 것도 경전에 담긴 뜻을 조금이라도 분명하게 풀어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일 것이다.



〈금강경〉을 일상의 언어로 풀이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사진 제공=김영사

진우 스님이 〈금강경〉을 강설하며 '실천'에 방점을 찍은 이유는 소천 스님의 '활공주의(活空主義)'에 깊이 감화됐기 때문이다. '금강반야의 길을 걸어간 실천적 사상가'로 알려진 소천 스님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의 길을 모색하던 중 〈금강경〉의 공(空)에서 그 답을 찾았다. 이는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하화중생의 실천불교를 지향하는 것'으로, 스님은 "불법(佛法)은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함보다도 깨달음이 있고 몸소 행(行)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천 스님의 가르침처럼 진우 스님은 "불교는 지극히 현실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살아 있는 현실 불교가 되고 나의 부처님이 된다"고 역설한다. 그렇기에 어려운 교리적 해설보다 현실의 삶 속에서 분별을 여의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변의 일상적 경험을 소개하며 그때그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전한다.

"내가 어떤 사람의 언행 때문에 화가 나거나 약이 오르거나 기분이 몹시 나쁘다면, 이는 나의 업보로 말미암아 기분 나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는 시절 인연을 만난 것이므로, 기분 나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업보가 원인이라는 것을 번개같이 알아채고, 나의 인연과 업보에 대해 먼저 참회해야 한다."

좋다거나 싫다거나 무엇도 분별하지 않고 어떤 감정도 일으키지 않으며, 다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 간단하고 명료한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정진해야 함을 스님을 거듭 거듭 말한다.

흔들리는 순간마다 〈금강경〉으로 중심을 잡아 일상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라고 당부하는 진우 스님은 "이 책의 한 구절, 한 문장이 독자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번뇌와 집착을 거두고 궁극적인 자유로 나아가는 데 작은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진우 스님은 대강백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담양 용흥사 몽성선원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2022년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후 '선명상'으로 한국불교의 중흥을 발원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법석과 콘텐츠 발굴에 진력하고 있다. 저서로 〈두려워하지 않는 힘〉 〈제발, 걱정하지 마라〉 〈만선동귀집 총송〉 〈신심명 강설〉 〈개미의 발소리〉 등이 있다.

생각에 휘둘리는 마음…불교적 치유가 답하다



불교와 인지치유
역기능적 사고와 그 해결
안양규 지음/ 올리브그린/ 2만원

현대인의 고통, 자동적 사고에서 비롯
불교와 심리치료 만남, 치유의 길 모색

현대인의 정신적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될까. 하루에도 수없이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 그중에서도 반복되는 부정적 사고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을 심화시키고 결국 심리적 질환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러한 역기능적 사고의 흐름을 끊고 삶의 균형을 되찾는 길은 없을까.

안양규 교수(동국대 WISE캠퍼스)가 최근 출간한 〈불교와 인지치유: 역기능적 사고와 그 해결〉은 불교 사상과 현대 심리치료의 통합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 연구서다. 한국불교상담학회 추천도서로 선정된 이 책은 인간의 사고가 어떻게 병리적 고통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하고, 그 해결책으로 불교 명상과 인지치료의 접목을 제시한다.

안 교수는 "불교와 심리학은 본래 인간 내면의 고통을 다룬다는 점에서 닮았다. 그 접점에서 새로운 치유의 길을 제시하고 싶었다"며 "부정적인 사고가 지속되면, 인간은 자신을 고립시키고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된다. 이 책은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실천적 지도를 그려보고자 한 노력의 결과"라고 전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사고의 정의와 기능을 소개하고, 인간의 사유가 어떻게 병리적 형태로 변질되는지를 설명한다. '불필요한 사고'와 '불선(不善)한 사고', 그리고 '사고의 병리 현상'이라는 주제를 통해 일상적인 생각이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짚는다.

2부에서는 불교의 '사고에 대한 통찰'과 현대 심리학자 알버트 엘리스, 아론 벡의 이론을 비교한다. 엘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REBT)와 벡의 인지치료는 모두 '비합리적 사고'의 구조를 파악하고 수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안 교수는 이에 대해 "붓다의 '사유(vitakka)' 개념은 이미 2500년 전부터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3부에서는 MBSR(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과 MBCT(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의 이론적 토대를 분석하고, 그 이론적 뿌리를 불교에서 찾는다. 이어 '사념처(四念處)' 수행과 '사티(sati, 알아차림)'의 원리를 현대의 심리치유 프로그램과 연결해 설명한다.

책은 명상의 실천적 방법으로 '자기 자비(self-compassion)'를 강조한다. 자기 비난과 수치심이 우울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불교와 인지치유〉는 단순한 이론서에 그치지 않는다. 각 장은 불교적 개념과 심리학 이론을 비교하며, 실제 치유 사례나 명상 수행을 위한 가이드를 함께 제시한다. 불교 상담 전문가와 명상 지도자뿐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실용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안양규 교수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문화대 교수로 현재 한국불교상담학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불교학과 상담심리학의 융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으며, 불교적 수행과 현대 정신치유의 접점을 탐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붓다, 자기 사랑을 말하다〉, 〈붓다의 임멸에 관한 연구〉, 〈The Buddha's Last Days〉, 〈불교 영어 첫걸음〉 등이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소한 것들에 대한 예찬



꽃비 오니 봄날이다
동은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 1만8천원

작은 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꽃비 내리는 봄날을 만든다

투박하지만 손에 딱 맞는 찻잔, 오래된 만년필 한 자루, 매일 지나치는 출퇴근길 풍경.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하루가 채워진다. 2023년 출간된 〈사소한 것은 없다〉의 개정판인 〈꽃비 오니 봄날이다〉는 동은 스님(조계종 화쟁위원회 부위원장, 삼척 천은사 주지)〈사진〉이 의자, 안경, 바람과 같은 '사소한 것들'에게 보내는 예찬이다.

4월 9일 서울 조계사 카페에서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스님은 4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찻잔을 직접 보여주며 '사소한 것'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다.

"이 찻잔은 제가 지리산 토굴에 있을 때 도반 스님이 주고 간 것입니다. 지금 보면 금도 가고 투박하게 생겼지만, 힘들 때마다 이 찻잔에 차 한 잔씩 하면서



동은 스님은 40년 동안 사용한 투박한 찻잔을 보여주며 사소한 것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힘들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초발심을 경책하는 선지식이라도 만난 듯 정신이 번쩍 들게 하니 제게 아주 소중한 물건이지요."

이처럼 책에는 우리 삶을 채우는 작고 소소한 존재들에 관한 글 24편이 담겨 있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모여 인생이 되며,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 인해 누군가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기에 사소함을 결코 사소하게 바라봐선 안 된다는 애정 어린 가르침이다. 또한 우리를 스쳐 가는 작은 인연들이라 할지라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볼 때, 평범한 일상에서도 봄날 같은 기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따뜻한 위로이기도 하다.

동은 스님은 "그간 여러 권의 책을 펴냈지만,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라며 "바로 '원각도량하처(圓覺道場何處) 현금생사즉시(現今生死卽是)'를 우리말로 옮긴 '행복 세상 어디 지금 이곳 여기'"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화쟁위원이기도 한 스님은 "최근 대형 산불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 상처가 치유되고 국민 모두가 화합해 모두에게 꽃비가 내리는 '봄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지금 살아가는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불현듯 엄습한다면
『금강경』 공부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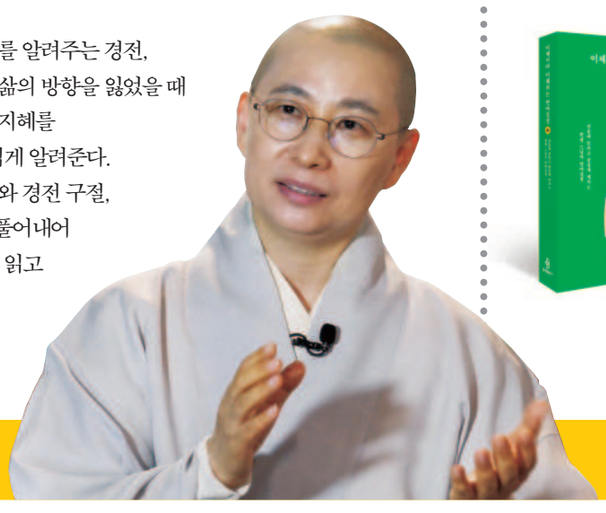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원영 스님의 금강경
단숨에 읽히고 즐겁게 깨치는



"드디어 나왔다!"
『금강경』이 어려웠던 이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유쾌한 『금강경』 강의!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의 지혜를 알려주는 경전, 『금강경』! 번뇌와 고민, 두려움에 흔들려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해주는 『금강경』 속 지혜를 '불교 공부 일타강사' 원영 스님이 알기 쉽게 알려준다. 세상 쉬운 언어와 표현으로, 다양한 예시와 경전 구절, 그리고 스님의 경험담과 함께 친근하게 풀어내어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누구나 단숨에 읽고 즐겁게 깨칠 수 있을 것이다.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원영 지음 | 328쪽
18,000원



불교 공부 일타강사
원영 스님의
'이제서야 이해되는 시리즈'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352쪽 | 18,000원
다양한 예시와 경전 구절, 그리고 스님의 경험담에 불교의 가르침을 녹여내어 단숨에 읽고 즐겁게 깨칠 수 있게 한 불교 입문서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304쪽 | 18,000원
'나'와 이 세상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법을 알려주는 『반야심경』속 지혜를 다정하면서도 흥미진진하게 알려주는 해설서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⑮ 무상함을 알라



▶한줄 요약
'놓음 명상'은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의 훈련으로, 감정을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오욕과 업식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고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업식서 벗어나 고요함을 찾아라

"

지나면 흔적조차 남지 않을 일

오욕으로 인해 희로애락 휘둘려

강한 집착, 강한 과보로 이어져

'놓음 명상' 마음 정화에 효과적

"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초승달 그믐달 늙음을 재촉하고
동트고 노을 지고 나이를 뛰어 넘네.
부귀영화 흔적 반짝 아침 이슬과 같고
희로애락(喜怒哀樂) 올록볼록 저녁 연기와 같구나.

인생무상(人生無常)을 생각해 보는 내용입니다.

저마다 사는 인생 무에 그리 할 일이 많고, 무엇이 그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격한 마음 내지 않고 여여히 편안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목숨을 걸 만큼 집착하는 마음이 너무도 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흔적조차 남지 않을 일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오욕(五慾-식욕, 수면욕, 재산욕, 성욕, 명예욕)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본능적인 욕심 때문에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희로애락, 喜怒哀樂)이 시시각각으로 마음을 어지럽히며 삶을 편치 않게 합니다.

오욕은 업식(業識-근본 마음)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본능화된 욕심은 나라고 하는 아상(我相)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자식과 친구, 지인 등의 인연을 구성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이 다섯 가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업식의 종자인 기쁨과 즐거움을 더욱 강하게 느끼기 위해,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통해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업식의 종자인 슬픔과 괴로움이 반대급부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또한 가족의 구성원을 통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와의 가장 근접된 인연, 특히 가족을 통해 업식의 종자인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끊임없이 발현(發顯)시키게 되고, 좀 더 특별한 업을 가진 사람은 가족을 도외시할 정도로 다른 무엇에 기대어 희로애락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거나, 또는 정반대로 노름이나 외도, 마약 등을 통해 고락의 업식이 작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어떤 대상을 통하든, 고락의 업식이 작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더구나 오욕을 통하여 얻는 것은 생로병사의 궤적(軌跡)만 있을 뿐, 나머지는 아침 이슬과 저녁 연기와 같이 모두 사라질 뿐입니다.

하여 고락(苦樂)의 업식은 더욱 견고해지고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한 집착심은 더욱 강해져서, 그 과보(果報)로 인한 슬픔과 괴로움이 나의 업식 속에 깊이 뿌리박히게 됩니다.

그러니 강한 집착은 강한 과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여,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순일한 마음가짐으로 오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인연에 순응하며, 너그럽고 여유롭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한다면, 업식의 종자인 고락(苦樂)의 격한 감정을 녹이게 되어, 근사하고 멋진 삶의 포즈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놓음 명상'의 실천은 이러한 마음의 정화에 효과적입니다. '놓음 명상'은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의 훈련으로, 감정을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오욕과 업식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고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기도로서 도움을 청해 볼 일입니다.

[오늘의 명상]
높은 곳은 높은 곳대로 평평하고(高處高平)
낮은 곳은 낮은 곳대로 평평하니(低處低平)
사람의 지위와 빈부의 높고 낮음도
살아가는 모습(고락,苦樂)에는 차이가 없다네.

높은 곳과 낮은 곳이 분명히 나뉘어 보일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구분이 무의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형태와 모습에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삶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희로애락(喜怒哀樂)의 본질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본래 모양은 결국 같으며, 그 형태는 크게 나누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즐겁거나 괴롭거나, 혹은 둘 다 아니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혹은 둘 다 아니거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 감정의 무게와 크기는 결국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일년을 기준으로 낮이 긴 계절이 있으면 밤이 긴 계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낮과 밤의 길이는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것이 10이라면 나쁜 것도 10이고, 즐거움이 100이라면 괴로움도 100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대적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항상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두 가지 변수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지위와 명예, 부를 가진 사람이라도 불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전생과 금생의 시간적 차이에 의해 전생의 즐거움이 금생의 괴로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나 좋고 나쁨의 시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좋고 나쁨의 무게와 크기는 동일합니다. 감정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희열과 슬픔의 강도도 커지며, 반대로 간극이 작아질수록 마음의 평화는 커집니다. 두 감정이 완전히 사라질 때, 우리는 부처의 자리, 즉 적멸(寂滅)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즐거움과 성공을 갈망하는 욕심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는 전생부터 쌓여온 업식(業識), 즉 습관 때문입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윤회의 악순환을 지속할 것인가, 업을 멸하여 영원한 자유와 해탈을 얻을 것인가.

오늘도 마음의 간극을 살피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

통도사 학장 인해 스님과 동학사 학장 명오 스님의 출가 이야기



승려의 삶을 사는 내내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입은
옷이 불편하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부디 자신의 인연에 꼭 맞는 옷을 찾아
입으며 참된 나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행히 여기에 내 옷이 있었다.

인해

스물 네 살의 청춘,
그 좋은 나이에 출가했다.
출가를 방해하는 여러 핑계를
나의 발심發心이 이겼다. 출가 생활은
감동의 도가니였다. 절은 상상 이상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곳이었고, 스님들은
멋스러웠다. 자유와 행복, 출가의 백미이다.

명오

글 인해, 명오|17,500원|296쪽

인해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 해인사 강원과 조계종립승가대학원을 졸업,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과정을 수료했다. 이어 동국대학교 선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초대 이사장, 동국대학교, 해인사, 수덕사, 동화사 승가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통도사 김해포교당 바라밀선원 주지를 맡고 있다. 저서는 《달마대사의 소실육문》,《우리말 법화경》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남종의 선사상 연구〉,〈혜능의 좌선관〉외 다수가 있다. 제31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하였다.

명오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동학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선학과·영문학과(학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종교학과 석사, 은해사 조계종립승가대학원 수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역서《대승기신론열망소》로 제1회 반야학술상 저역상, 저서《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로 제19회 불교출판문화상에서 올해의 불서 10 선정 및 붓다북 학술상을 수상했다. 논문은〈초기불교 병인론과 대승불교 사경 공덕 및 심신치유에 관한 연구〉,〈초기불교와 대승불교《열반경》에 나타난 재가불자의 계율 사상 연구〉등 다수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리더에게 請하다

돈관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동국발전·불교중흥’, 미래세대 전법에 있습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가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다. 지난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9위를 달성하며 4년 연속 톱10을 달성했고, 단과대학마다 불교동아리가 창립돼 대학생 전법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이 중심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있다. 돈관 스님의 강점은 ‘소통’에 있다. 이사장 취임 후 돈관 스님은 취임식 대신 전국의 캠퍼스, 병원 등 학교 기관과 산하 부속 학교를 다니며 구성원들과 소통했다. 그곳에서도 가장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시설 관리, 환경미화원 등을 먼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30년 동안 기계실에서 근무한 직원은 “30년을 이곳에서 일했는데, 이사장스님이 지하까지 내려와 직원들을 만난 것은 처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돈관 스님이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이루고자 한 것은 건학이념 구현을 통한 ‘동국발전 불교중흥’이다.

4월 4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이사장 집무실에서 열린 교계 기자간담회에서는 돈관 스님은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을 비롯해 불교동아리, 전법특임교수, 로터스관 조성 불사 등 학교 발전을 위한 로드맵들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돈관 스님은 “미래세대 전법이 성공해야 ‘동국발전·불교중흥’이 완성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돈관 스님은…1978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9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제14 · 17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전국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대구불교방송 사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천연기념물 분과), 학교법인 동곡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 동국대 석림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Q.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 불교동아리 창립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간 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은?

A. 조계종립 동국대 서울캠퍼스가 학부생이 1만4000명, 대학원생 4000명이고, WISE캠퍼스가 학부생 8000명, 대학원생 2000명입니다. 총 2만 8000명이 동국대의 재학생인데 2024년 1월 학내 불교동아리 인원을 파악해 보니 200명 정도 되더군요. 그나마 이것도 나아진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집토끼부터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서울캠퍼스 2000명, WISE캠퍼스 1000명 총 3000명의 대학생 불자를 양성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아홉 스님들과 상월선원 무문관에 들어갔고, 삼사순례·천리순례·인도 43일 도보순례를 했습니다. 동국대 단과대학별 불교동아리 창립은 ‘동국대 이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나온 결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캠퍼스에 15개, WISE캠퍼스 6개, 듀이카에 1개, LA캠퍼스에 1개, 총 23개의 불교동아리가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했고, 올해 열린전공학부에도 ‘무념무상’이라는 불교동아리가 창립됐습니다. 학부생 210명 중 90명이 동아리 회원입니다. 학생들이 여법하게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것을 보고 참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4월 10일에는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불교동아리가 창립돼 동국대 불교동아리는 25개로 늘어났다. 동국대에 따르면 총 회원 수는 4000여 명에 이른다.)

Q. 지난해 열린 ‘영캠프’를 통해서는 2500여 명이 수계를 받고 불자가 됐다. 영캠프 개최 목적은 무엇인가.

A. 자승 대종사는 “허리가 튼튼해야 조직이 바로 선다”면서 ‘대학생 전법’을 화두로 던졌는데, 저와는 2000명을 모아 전국 영캠프를 개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사활을 걸고 지난해 9월 24일 장충체육관에서 첫 영캠프를 열고 2500여 명이 수계를 받았습니다. WISE캠퍼스도 영향을 받아 학생 1800명이 영캠프를 통해 수계를 받고 불자로 거듭났습니다.

무엇보다 영캠프는 동국대 단과대학 불교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축제여서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9월 24일에 장충체육관에서 서울캠퍼스가 영캠프를 개최할 예정이고, 11월 18일에는 WISE캠퍼스가 교내 문무관에서 영캠프를 엽니다.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체계적인 불교 동아리 활동과 신행 생활을 통해 수계로 이어지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Q. 올해 전법특임교수 제도를 신설했다. 제도 신설 이유는 무엇인가.

A. 신설된 전법특임교수 제도는 동국대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지도법사단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 불교동아리 신행활동을 지도하는 법사단의 적극적인 전법포교 활동을 지원하고 전법 사명감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까지 교내 불교동아리 신행활동을 지도하는 법사스님들은 자신의 연구와 학업활동 이후 남는 시간을 이용해 활동해왔습니다. 또한 강의 등 전법영역을 확대하고 싶어도 신분 제약 상 어려움이 있었죠. 전법특임교수라는 권한과 지위를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캠퍼스 전법을 추진하자는 것이 신설된 제도의 골자입니다. 전법특임교수를 통해 불교동아리의 안정된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국대는 지난 2월 27일 ‘2025학년도 산하기관 신규 교원·직원 임용장 수여식’을 열고 올해 신설된 전법특임교수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전법특임교수는 1년 단위로 임용되며, 연간 활동 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Q.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의 성과도 눈부시다. 2021년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오는 5월 중 100회 수여식을 앞두고 있다. 그간의 성과가 궁금하다.

A.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 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제도입니다. 1개 사찰마다 연간 10명의 지역 인재(동국대 재학생)에게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생은 템플스테이, 각종 법회 참석, 재능기부 등 해당 사찰과 다양한 스킨십을 통해 불교청년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포교와 장학이 접목된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포항 원법사로 시작해 4월 3일 군위 법주사까지 총 95번째 장학증서 전달이 이뤄졌습니다. 약 3000여 명이 장학 혜택을 받았습니다. 5월 중순에는 100회 전달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지에 공감한 사찰들의 장학금 전달이 이어졌습니다. 첫 장학금 전달 사찰인 원법사와 지리산 화엄사는 네 차례에 걸쳐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 사찰에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주기적으로 감사 인사를 위한 방문을 학교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생들에게는 부처님 오신날 지원 사찰 방문, 템플스테이 참여 등 신행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Q. 학생들이 감사편지를 전달하고 있다.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는가.

A. 모든 학생들의 편지가 소중하고 감동적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학생들의 편지를 소개하는 책을 발간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한 명을 꼽자면 지난 3월 6일 진주 백운사의 장학생이 기억에 남습니다.

희귀병으로 큰 수술을 받고 동국대에 입학했는데, 백운사의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여전히 일생생활에 불편함이 있지만, 백운사에서 주신 장학금에 너무 고마워하더군요. 좌우명을 ‘돈오점수’로 삼고, 사찰과의 따뜻한 인연을 계기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며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담긴 편지였는데,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Q. 오는 9월 중 로터스관 건립불사가 시작된다. 로터스관 건립 불사의 의미는?

A. 로터스관은 지난 3월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승인되며 본격적인 불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설계가 나온지 6년 만이죠. 총 연면적 2만6502㎡, 건축면적 2843.46㎡에 본관 지하 3층~지상 3층(2411평), 별관 지하 6층~지상 2층(5619평)으로 지어지는 ‘로터스관’에는 박물관·선센터·사무공간·교육연구시설·강의실 등이 들어섭니다.

무엇보다 박물관이 새롭게 조성된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동국대 박물관에는 국보 2점, 보물 8점을 비롯해 중요한 불교문화유산들이 5800여 점이 있습니다. 이들을 잘 보존·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는데, 2028년 로터스관이 들어서면 불교문화유산 연구를 위한 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성공적인 불사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다. 이에 대한 방안은?

A. 로터스관은 단순한 건물 건립 사업이 아닙니다. 동국발전과 불교중흥을 위한 대작불사입니다. 당장 이사장인 저부터 전국을 다니며 건립기금 모연을 할 것입니다. 동국인들과 사부대중의 동참을 바랍니다.

Q. 대형 산불과 미얀마 대지진 등 안타까운 재해들이 이어지고 있다. 영남 지역 학생과 미얀마 유학생을 위한 지원 계획이 궁금하다.

A. 잇달은 자연 재해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28일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를 비롯해 의료원, 부속 학교 등이 참여하는 모금운동을 진행하려 합니다. 동국대에는 미얀마 유학생이 35명 정도 재학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2021년 11월 포항 원법사로 시작

5월 중 100회 증서 전달식 예정

지역사찰–학생 연결 신개념 장학

‘불교동아리 활성화’

2024년 단과대 불교동아리 창립

올해도 2개 추가… 총 25개 활동

전법특임교수 신설, 안정화 기틀

‘로터스관 조성 불사’

오는 9월 로터스관 착공식 예정

박물관 등 연구 · 교육시설 확충

“불교중흥 불사에 全불자 동참을”



학교법인 동국대는 2월 27일 교내 정각원에서 ‘2025학년도 신하기관 신규 교원 · 직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처음으로 임용된 전법특임교수들의 기념 촬영 모습.



4월 3일 열린 동국대 제95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 단체 기념사진.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❼ 나태주의 '바람 부는 날'

▶한줄 요약
진정한 자비, 사랑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을 때 나온다. 참다운 사랑은 너와 내가 한 몸(同體)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상대가 불행할 때 얼마나 슬픈지가 아니라, 상대가 행복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보면 된다는 것이다.



그대가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사람이다

언젠가 한 학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불교가 뭐냐는 질문을 지인에게 받았는데, 대답을 못 해 난감했다는 것이었다. 적지 않은 시간 절에 다니고 불교대학에 입학해 공부했어도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모범답안 같은 것이 없는지 물었다. 그래야 좀 더 쉽게 전법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아마 많은 불자들이 공감하는 문제일 것이다.

실제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사람에 따라 답변도 매우 다양하다. 누군가는 나쁜 짓 하지 않고(諸惡莫作) 착하게 사는 것(衆善奉行)이 불교라고 답한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는 것(離苦得樂)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저 마음 하나 깨치는 것이 불교라는 선불교적인 답변도 있다. 어찌 보면 듣는 사람을 배려한 답변일 수 있지만, 불교 전체를 관통하는 대답으로는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쉬우면서도 불교의 핵심을 담은 답변이 없을까 고민해 보았다. 그 결과 불교란 한마디로 동체자비(同體慈悲)의 가르침이라고 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동체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연기의 진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상대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慈), 상대가 슬프면 나도 슬픈(悲) 진정한 자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불교의 일관된 입장이다. 동체자비는 일반인에게도 낯설지 않고 깨침과 자비의 가르침이라는 불교의 본질을 함축하고 있어서 더없이 좋은 답변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태주 시인의 '바람 부는 날'이라는 시를 읽다가 문득 동체자비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알려진 것처럼 그는 '풀꽃'이라는 시로 유명한 작가다. 잠시 감상해 보기로 하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 너도 그렇다."

짧으면서도 인상적인 문장으로 사랑의 본질을 전하고 있는 멋진 작품이다. 아무리 사랑해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상대가 얼마나 예쁜지 잘 알 수 없다. 오래 보는 일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그렇다.

나태주는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대숲 아래서'라는 작품으로 등단하였다. 당시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시를 쓰고 있었다. 등단 이후 〈누님의 가을〉을 비롯하여 〈사랑이여 조그만 사랑이여〉, 〈풀꽃〉, 〈사랑만이 남는다〉 등 수많은 시집을 발표하였다. 〈꽃을 던지다〉와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등 산문집도 여러 편이다. 한국시인협회상과 정지용문학상, 소월시문학상 대상 등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주위를 보면 시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시인은 자신이 바라본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상징을 동원하는데, 시어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럴 때 읽기 편하고 마음에 쏙 들어오는 시를 만나면 무척이나 반갑다. 오늘의 주인공 나태주 시인의 경우가 그렇다. 그의 시는 읽기 쉽고 편하면서 때로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사람들이 중시하는 사랑이나 진실 등의 가치를 쉬운 언어로 의미 있게 전하고 있다. 시인의 가장 큰 장점이자 그가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유라 할 것이다.

오늘의 시 '바람 부는 날'은 2022년 출간된 시집 〈한 사람을 사랑하여〉에 실린 작품이다. 출판사 소개 글에 의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한다. 즉 한 사람을 붙여 쓰면 '한사람'이 되는데, 결국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 되고, 서로 연결되어 '한사람'이 되는 셈이다. 불교의 본질인 연기(緣起), 동체(同體)와 뜻이 서로 통한다.

모든 존재는 홀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실천이 바로 자비다. 불교를 한마디로 동체자비의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를 직접 감상해 보자.

바람 부는 날 숲속에 가보면
이 나무, 저 나무 모두 흔들려
둘은 상호 존재 이유이자 근거
모든 존재 연결됐다는 깨달음서
구현되는 불교적 실천이 '자비'

"두 나무가 서로 떨어져 있다 해서 /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 두 나무가 마주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 서로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다 / 바람 부는 날 홀로 / 숲속에 가서 보아라 / 이 나무가 흔들릴 때 / 저 나무도 마주 흔들린다 / 그것은 이 나무가 저 나무를 /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표시이고 / 저 나무 또한 이 나무를 / 쉬지 않고 생각한다는 증거 / 오늘 너 비록 멀리 있고 / 나도 멀리 말이 없지만 /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고 / 서로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 나무와 저 나무는 '不二'

"아프냐? 나도 아프다."

2003년 MBC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다모'의 유명한 대사다. 상대를 너무 사랑하기에 그녀가 아프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저절로 아프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나와 대상이 하나라는 인식이 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감정이다. 마치 어린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픈 것처럼 말이다. 상대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런 마음은 나오지 않는다. 네가 아프니까 내가 아픈 것은 상대를 사랑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러한 사랑을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慈)는 상대가 기쁠 때 나도 기뻐하는 것이며, 비(悲)는 상대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비는 서로가 연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할 때 나올 수 있는 감정이다. 그런데 아무리 미워하는 관계라도 상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슬퍼할 수는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불행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까운 사이라 해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닌 이상 상대의 기쁨에 대해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겉으로는 기뻐하는 것처럼 행동해도 무의식에서는 부러움이나 시기, 질투 등의 감정이 작동하는 것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가 있는 셈이다. 상대의 행복에 대해 인색한 것 역시 인간의 본능이다.

이처럼 진정한 자비, 사랑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을 때 나온다. 성경에서도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참다운 사랑은 너와 내가 한 몸(同體)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상대가 불행할 때 얼마나 슬픈지가 아니라, 상대가 행복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보면 된다는 것이다.

나태주 시인은 두 나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면 바람 부는 날 홀로 숲속에 가보라고 권한다. 시인이 지적한 것처럼 이 나무가 흔들릴 때 저 나무도 흔들리는 것은 둘이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말이다. 이 나무와 저 나무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쁜 것이다. 서로서로 존재 이유이자 근거가 되는 셈이다. 이처럼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하면 말이나 행동, 생각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

"세상에 와서 / 내가 하는 말 가운데서 / 가장 고운 말을 /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 세상에 와서 / 내가 가진 생각 가운데서 / 가장 예쁜 생각을 / 너에게 주고 싶다 / 세상에 와서 / 내가 할 수 있는 표정 가운데 / 가장 좋은 표정을 / 너에게 보이고 싶다 / 이것이 내가 너를 / 사랑하는 진정한 이유 / 나 스스로 네 앞에서 가장 /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다."

나태주의 '너를 두고'라는 시다. 사랑하니까 가장 고운 말과 가장 예쁜 생각, 그리고 가장 좋은 표정을 보이고 싶은 것이다. 상대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표정과 말이다. 이처럼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 절로 생긴다. 어쩌면 사랑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좋은 사람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 한 것처럼 사람은 결이 비슷한 이들끼리 모이는 법이다.

비록 부모와 자식, 연인처럼 가까운 관계가 아니어도 우리는 누군가의 슬픔과 기쁨에 함께 반응하면서 살아간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폭싹 속았수다'에 나오는 대사다.

"유채꽃이 혼자 피나. 꼭 떼로 피지. 혼자였으면 골백번 꺾였어."

유채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했기에 그 세찬 바람을 이겨내고 아름답게 피는 것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혼자였으면 어찌 자식 잃은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겠는가. 힘든 시간을 함께 나눈 이웃이 있었기에 그 모진 풍파를 견뎌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명(共鳴), 즉 함께(共) 울리는(鳴) 마음의 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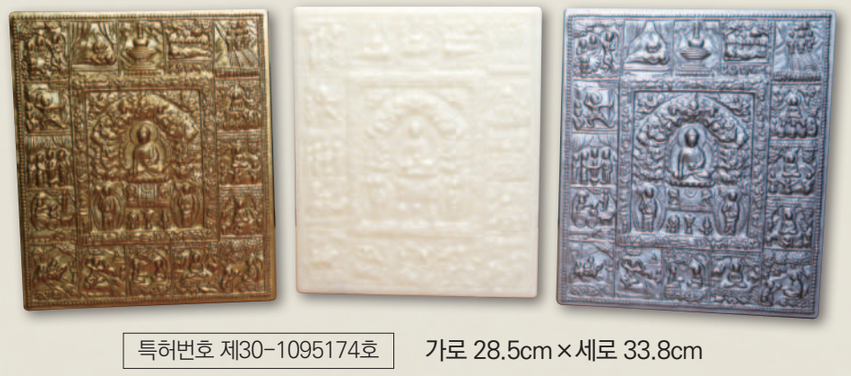
이런 공감의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는 세상이 다름 아닌 불국토 아닐까. 이곳에 사는 한 사람은 그저 나와 관계없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한 몸(同體)이다. 제주를 아름답게 수놓은 유채꽃과 바람에 흔들리는 숲속 나무에도 동체자비의 가르침은 작동하고 있었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釋迦世尊 一代 聖相圖
석 가 세 존 일 대 성 상 도

티베트 순례 중 부처님 일대기 성상도를 수집하여 소장하던 중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를 본 떠 만든 소장용 제품을 보급합니다.



도솔내의상/수하탄생상
태자수련상/사문유관상
태자결혼상/유성출가상
삭발백의상/초기수도상
설산수도상/선하조욕상
마왕유혹상/수하항마상
녹야전법상/진신사리탑

특허번호 제30-1095174호 가로 28.5cm×세로 33.8cm

"총판, 판매원 모집. 특히 스님·교계기자·법사 환영"

주식회사 성 월 대표전화 02-765-1248 / 010-7773-1248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27호 | 15 | 전면광고

계행을 가지는 것 즐거움이니
몸으로 모든 고통 받지 않으며
잠을 잘 때 편안을 얻게 되고
깨고 나면 마음이 환희하나니.



부처님 말씀 읽기 - 《열반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부지 : 700평
- 건평 :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매가 : 25억

- 위치 : 부산시
- 면적 : 700평, 전통사찰
- 법당 : 30평, 요사60평
- 매가 : 35억
- 산 밑, 주차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매도, 매수,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 / 법당 20평 산신각 / 요사, 별채 50평
- 가액 : 2억2천
- 수도 가스난방

010-2369-3382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1000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 67평 동불 삼존불
- 보증금 : 5000/월세 : 180만원
  시설물 : 2500만원 상당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300m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남녀화장실

010-3102-5102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 주차장 등)
- 가 액 : 상담 후 결정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40-265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휴대세교길 234번길 24 대원사
- 법당 30평, 공양간 20평, 요사채 방2 거실1
- 가액 : 3억 2000만원(절충가능)

041-548-7181
010-3423-7181

포교원 건물(급)안내

- 위치 : 강원 원주시 학성동
- 면적 : 82평 실평(3층 건물)
- 대로변 주차 가능
- 매가 : 4억8천만원
- 통화 안 될때는 문자·문의

010-2708-697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
- 전월세 가능 : 보 4000 / 월세 40
- 청정 기도도량 입니다

010-2807-05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사찰(토지) 급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 주택 40평(법당 이용)
- 대나무숲 250평
- 주차 100대 가능
- 토지 1505평

010-3565-1151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동김해ic서 5분 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6898-9114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사천시 새고개2길 47 (삼천포)
- 대지 : 265평 (법당20평 정동향)
- 요사 : 30평 (방3, 화장실2, 정남향) 3평(황토 찜질방 1동)
- 특징 : 대형e마트 도보3분 위치 30대주차, 마당까지 진입
- 가액 : 2억3천(地價만 계산했음)

010-8868-70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3억 2000만원

010-5316-56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 230평
- 가액 : 2억3000만원(가격절충)
- 종교부지 / 주차 5대
- 법당 20평 산신각 요사채 등

010-9389-74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3천(대출 2억 13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암자터, 명당안내

- 암자, 명상원, 산속찻집, 문화원으로 적합함
- 위치 : 지리산 하동 악양면
- 청학골 전설의 두계곡 물이 합수하여 정원수가 됨(해발 200여m) 100여m 청석 반석으로 물이 감아 흐름
- 482평, 평당 15만원

010-8637-3872

불교상가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신동 2차선 도로접(인북로 325번지)
- 1층 상가임대 현재 불교용품 판매점
- 우리옷(생활한복), 차, 다구, 선물용품. 현재 영업중
- 개인 사정상 급임대
- 임대보 1천5백만 월35만원 (시설비 권리금3천만)

010-7298-1191

사 찰 안 내

- 대구시 중심. 매매 또는 임대
- 전통형식대웅전 40평(웅장함)
- 전통기와 종무원, 문학관, 천왕문
- 뒤 대숲, 실개천, 등산로입구
- 주거지역 천5백평, 분할가능
- 매매시 몽땅 75억, 분할 35억
- 임대시15억(관리 잘할 스님)

- 전주시중심. 문화재 보유
- 대웅전 30평(전통)산신각
- 1800평 13억원 급매

– 기도도량 –

- 안동 : 9천만원 법당, 요사채
- 영천 : 4천만원 법당, 요사채
- 대구 팔공산 : 2억 5천만원

053-745-9999, 010-2512-7777

광고 접수 번호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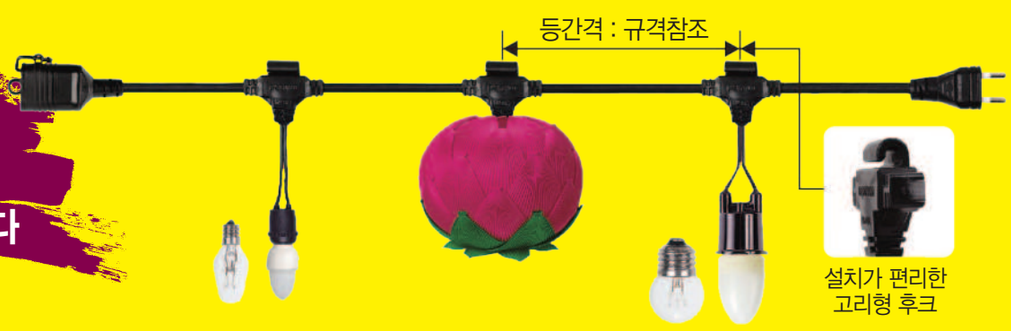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대원산업
BULJE DAEWON CO.LTD

구 입 문 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생활안내

1527호 | 16 | 전면광고

너그럽게 살아라.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고
이익을 얻으면 대중과 함께 나눠라.



부처님 말씀 읽기 -《유행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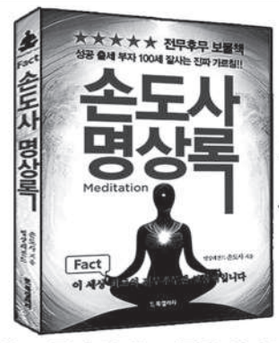
상담 : 010-2090-4030

사찰행사(불교의식)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무, 전통살풀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연암당 스님
010-6219-4757

손도사 유튜브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요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재,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사찰홍보에 도움을 드립니다

YouTube, 음반, 출판, 행장 등
제작, 관리, 감수 등
dalrma2025naver.com
다르마기획

010-8048-2145

사찰전문 건축공사

1. 사찰 지붕공사(칼라 강판 · 판넬)
2. 일반주택, 빌라, 상가 (기와/슬레트, 슬라브) 지붕공사
3. 요사채 창고 등 신축 및 수리
4. 전기판넬, 보일러 등 난방 공사
5. 전기배선, 조명 공사
6. 진입로, 옹벽, 기타 토목공사
*공사관련 모든 사항 상담 가능

대성 010-3817-8075
개발 010-3824-0846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태아령 유산낙태, 남 · 여 구별법(예방법), 산소 무덤 물찬곳, 송사 재판, 암, 자궁암, 유방암
• 이혼수, 부도 • 배우자가 일찍 죽는 상 • 귀신 붙은 상 • 자살상, 중풍, 뇌졸중 상, 자식이 일찍 죽는 상 • 조상기도특수비법 작명, 아기이름, 개명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구성학
• 스님, 법사, 무당, 일반인, 특별책임 개인지도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절에 함께 계실 행자님, 처사님, 스님 구합니다

부산 만덕동
만덕사 금정원

010-3840-4355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공양주 급구함

수행하며
오래 계실분

경북 예천 용화사

010-6529-2005

사찰 및 재단법인 추모공원 대표 및 주지 하실분 찾습니다

땅 만평 정도, 관광사찰
납골 현 600기정도

부전스님 구합니다 010-2078-9595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위 육임 프로그램과 육임Ai와 육임 각 활용서 극대 효능을 위한 저, 효사 개별 직접 방문 전국 순회 일정입니다.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⑧ '폭싹 속았수다'(2025)

역사를 살아내온 우리 모두 '장하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처음 공개될 즈음, 올해를 대표하는 드라마로 꼽힐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막상 16부까지 드라마 전체가 공개되고 나니 예상보다 훨씬 폭발적인 반응이다.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라거나 '최애 인생 드라마'라는 평가가 쏟아졌고 그 여운도 길게 이어지고 있다. 2025년 3월 한 달 넷플릭스 월간 사용자 수가 1400만이 넘은 것은 덤. 〈글로리〉가 공개되었던 2023년 1월 이후로 두 번째라고 한다.

〈폭싹 속았수다〉는 제주에서 태어난 1951년생 오애순(배우 이지은/문소리)의 70년 인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드라마이다. 그리고 애순의 곁에서 사계절을 함께 살아낸 남편 양관식(배우 박보검/박해준)의 이야기이다. 드라마는 이 둘의 서사를 중심으로 큰딸 양금명(배우 이지은)의 이야기를 비중있게 다루면서도 애순의 가족과 관식의 가족, 해녀 3인방과 부상길(배우 최대훈) 가족까지 거의 모든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골고루 담아내고 있다.

지난번에 작가의 전작인 〈동백꽃 필 무렵〉을 거론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이야기"이자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진실을 알려주는 드라마라고 했는데 이런 기조는 〈폭싹 속았수다〉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너나 할 것 없이 애순이 부부를 보며 우리네 부모를 떠올리고, 금명이를 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할 만큼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풀어놓으면서, "덕 쌓고 살어라. 덕도 업도 고대로 자식들한테 물려준다"거나 "제비의 박씨는 운이 아니라 흥부가 따낸 포상"이라며 선한 행동의 결과가 기적이 되어 다가오는 불교적인 도리를 전한다.

〈동백꽃 필 무렵〉 '엄마, 媽媽, mother' (15회) 편을 보면 까불이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동백을 엄마인 정숙이 구해내는 장면이 있는데, 〈폭싹 속았수다〉에서도 인신매매를 당할 뻔한 애순을 엄마의 촉으로 구하는 광례의 모습이 등장한다. 이러한 모성은 애순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연탄가스에 중독된 금명을 제주도에서 날아온 애순이 살리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폭싹 속았수다〉에서는 어머니인 애순 못지않게 아버지인 관식도 금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필사적이다. 작은 배의 선장으로 하루 다섯 끼를 먹어야 할 정도로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힘들다는 내색 한번 없이 자식을 위해 살아온 관식은 언제나 "힘들면 빠꾸해. 아빠 항상 여기 있을게"라며 금명을 응원한다. 어떤 순간에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가장의 모습과 부모의 사랑을 전면으로 내세운 점에서 〈동백꽃 필 무렵〉과 구별되는 〈폭싹 속았수다〉만의 특징이 있다.

〈동백꽃 필 무렵〉에 주인공 동백의 본래 모습을 꺼내어주고 자존감을 북돋아 준 용식이 있다면 〈폭싹 속았수다〉에는 애순을 향한 사랑만으로 똘똘 뭉친 팔불출 무쇠 관식이 있다. 어린 시절, 대통령이 되겠다는 애순의 꿈을 듣고 자기는 '영부인'이 되겠다고 선언한 관식은 애순이 자신의 본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애순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금명에게는 새삼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줄 용식이나 관식이 필요 없다. 자신처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을 찾을 뿐이다. 금명의 남편이 마마보이 영범(배우 이준영)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존중받고 자란 충섭(배우 김선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 포스터. 사진출처=넷플릭스

'등 두드려주는 손'은 세상 모든 부모 사랑 상징
가치 알아준 광례 · 관식 덕에 애순 세상은 꽃밭
아픈 현대사와 문학 감성 담긴 역사의 '서사시'

소녀 애순이 소년 관식에게 한 "소 죽은 귀신이 씌었나 뭔 놈의 게 지껄이지를 않는다"는 말을 금명이 자신의 첫사랑인 영범에게 똑같이 하는 장면 때문에 시청자들이 잠시 헷갈리긴 했지만, 사실 무쇠 같은 관식의 본질은 "지껄이지를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애순을 위해서라면 집안의 위계질서를 깨고 애순이 있는 밥상으로 돌아앉을 줄 아는 기개와 과감히 분가해서 가부장적인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애순을 떼어놓을 줄 아는 용기이다. 부잣집에서 자라 말만 앞서는 영범과 달리 뱃멀미를 하면서도, 관식의 권하는 술에 취해서도, 금명이 걱정되어 화장실까지 따라가는 충섭. 딸이 "상을 차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을 막 엎는 사람이 되었음 좋겠"다던 애순의 바람은 금명이 영범을 버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충섭을 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금명을 향해 국도 제대로 못 뜬다며 핀잔을 주고, 격이 맞지 않는 결혼이니 금명이를 말려달라던 영범의 어머니와 달리 "가을에 친정집에 가 제일 좋은 감을 따다가 드릴 생각하며 한 계절 내내 공을 들였습니다. 예쁜 금명이를 보듯 매일 보고 또 보며 만들었습니다. 저는 금명이가 그렇게도 예쁩니다"라는 충섭 어머니의 카드를 보며 눈시울을 붉힌 것은 애순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딸을 둔 어머니들이었을 것이다.

〈폭싹 속았수다〉의 핵심은 '등 두드려주는 손'이다. 관식은 광례의 장례식에서도, 젊은 날 힘들어하던 어느 날에도, 자신의 죽음을 앞둔 어느 날에도, 슬퍼하는 애순의 등을 다정하게 두드려준다. 그 두드려주는 손 너머로는 "웡이 자랑"이라고 읊조리는 자장가가 함께 들려온다. 드라마에서 애순의 등을 두드려주며 자장가를 불러주는 장면이 처음 등장한 것은 광례가 애순에게 유언을 할 때였다. 그러므로 등 두드려주는 손은 애순에게 어머니와 같다. 애순이 관식에게 "두드려"라고 말하는 것은 광례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하는 애순의 마음인 동시에, 관식이 광례를 대신하여 인생의 지지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사는 내내 우리 등만 두드려준 아빠"라는 금명의 내레이션을 통해 '등 두드려주는 손'이야말로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부모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애순은 유난히 꽃을 좋아한다. 옷도 꽃무늬, 양말도 꽃무늬, 핀도 꽃핀, 온 천지가 꽃이다. 또 평생 시인을 꿈꿨던 오애순의 시집이 출간되고 나서는 "칠십 년짜리 꽃동산"이라고 애순의 입으로 직접 말하기도 한다. 내가 가진 가치를 충분히 알아주고 응원해주면 그곳이 바로 꽃밭이라는 메시지다. 그러니 애순의 가치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광례와 관식과 가족 덕분에 애순의 세상은 온통 꽃밭이었고, 애순의 수만의 날들이 온 천지가 꽃밭인 봄이었다.

애순의 시 〈ㅊㅅㄹ〉에서도 "그래서 내 맘이 만날 봄인가"라고 하고 시집의 표지에도 보이는 〈오로지 당신께〉에서도 "당신 덕에 나 인생이 만날 봄이었습니다"라고 한다. 드라마의 오프닝 주제곡 제목이 〈봄〉이고, 금명이 딸 이름도 '새봄'인 것도 그래서이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1951년생 주인공을 통해 우리의 아픈 현대사를 고스란히 담아내면서도 적절한 웃음과 문학적 감성을 덧붙인, 그야말로 역사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살아내온 우리 모두에게 "미안함과 감사, 깊은 존경을 담아, 폭싹 속았수다"라며, 그동안 폭싹 속았으니 '장하다'고 위안과 격려의 말을 함께 전한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⑮ 고대소설 속 삼계교

지장신앙 바탕했던 삼계교 고대소설 속 설화에 반영

지난 회까지 고대소설 〈명보기〉와 〈영이기〉에 나타난 삼계교 사상과 활동상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회에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명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설화를 비교하면 '명계(冥界)'에 관한 설화군이 적지 않습니다. 명계에 대한 설화가 많은 것은 삼계교의 활동상을 전했던 소설들인 만큼 지장신앙을 기반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영이기〉에 담긴 삼계승 수행 체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진적사 사문 혜여는 어릴 때부터 정근 고행하며 신행에게 사사했는데, 신행 선사의 사후에도 그 법을 잘 받들었다. 수(隋) 대업 때에는 좌선수정(修定)하여, 7일간이나 움직이지 않아 모든 대중들이 감탄했다. 삼매에서 깨어난 혜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본 대중이 물었다. 그에 대해 혜여가 말하길, 염라대왕의 부탁을 받아 7일 간의 행도(行道)가 끝난 날, 왕으로부터 선망지식(先亡知識)을 보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두 사람을 보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염라대왕이 한 사람을 불렀는데, 거북이가 와서 혜여의 발을 핥으며 눈물을 흘렸다. 또 한 사람은 죄가 너무 무거워 부를 수 없다 하였다. 이것을 본 사자는 혜여를 옥문까지 안내했다."

이는 삼계교의 수행승을 통해 인과응보와 중생의 뿌리 깊은 번뇌를 깨닫게 하려 한 설화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보기〉 중권, '목인개(睦仁蓋)' 조(條)의 일부입니다.

목인개가 경(景)에게 물었다. "불법에는 삼세의 인과를 설하는데, 이것은 온당한 일입니까."

이에 경이 "온당합니다"라고 하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죽어 제각각 육도(六道)에 들어가는데, 도대체 어떤 이가 귀신이 되는 도리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조(趙)의 무령왕과 당신은 아직도 귀신이 되어있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경이 되묻기를, "당신의 현(縣)내에 집은 몇 채나 있습니까?" 목인개가 답하길, "만여 호 정도 됩니다."

다시 경이 말하길, "죄수는 몇 명입니까?" "늘 스무 명 이하입니다."

경이 다시 묻기를, "만호 안에 5품관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9품관 이상은 몇 명입니까?" "수 십 명입니다.'

이 같은 장황한 이야기 속에서 저자는 지옥의 구조를 독자들에게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명보기〉 저자 당림은 남북조 시기 말 법탁세의 중생이 삼계교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했는지를 기경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보여줍니다. 저자의 저술로 삼계교단의 사상과 활동상은 송대(宋代)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명보기〉라는 소설은 육조(六祖)시대의 불교설화집, 불교 홍보를 위한 소설이라는 범주를 넘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상과 생활상을 설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학사적 가치는 분명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이렇듯 삼계교의 사상과 교단의 수행자들의 실천상은 〈명보기〉와 〈영이기〉라는 소설을 통해 면면히 내려왔으며, 후대에 발굴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단초가 됐습니다.

〈송림사 주지〉

해광산업
해광양초는 특별한 양초로 양초에 정성과 향을 담습니다
"자연친화적향의 향기가 법당에 스며들다"



해광산업 주문전화번호 031-333-0242, 010-5848-0189

(구)삼환양초가
중국 대련에서 40년 기술 노하우를
현지 공장에 전수하여 관리 생산한
최고급 중국산 대련양초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WWW.SHCANDLE.COM



*유통 마진 없이 소비자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삼환양초 주문전화번호
031-337-0243, 010-2308-0189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❽ 향을 사르며 올리는 기도: 고려 왕후가 발원한 향완



▶한줄 요약
함평궁주는 불보살을 모신 사찰의 주요 전각이 아니라 경전을 보관하는 경장(經藏)에 두기 위해 이 향완을 발원했다. 경장 안에 향완을 안치했다는 사실은 경전을 불상과 마찬가지로 예경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연 속 염원, 부처님께 닿기를

여러 불교 경전에서는 불보살에게 올리는 대표적인 공양물의 하나로 향(香)을 언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의 전래와 함께 향을 피우는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아도기라(阿道基羅)' 조에서 볼 수 있듯이 향은 불경, 불상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전해진 불교 의례, 문화, 신앙 행위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불에 사르면 풍겨 나는 강한 향내는 신성(神聖), 곧 삼보(三寶)에 정성을 통하게 할 만큼 효과적인 공양물로 여겨졌다. 불자들에게 있어 향 공양은 반드시 영험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라 널리 믿어졌다.

고려의 국왕들은 후궁(後宮)과 더불어 절에 가서 향을 피우지 않은 달이 없었다고 〈용재총화(慵齋叢話)〉에 기록될 정도로 행향(行香)을 중시했다. 실제로 〈고려사(高麗史)〉에서 국왕의 행향 기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향을 불전에 올리는 일은 고려시대 불교신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향은 조정에서 외국 사신을 맞이한다거나 왕비나 왕태자, 왕자와 왕녀를 책봉하는 각종 의례에 쓰일 만큼 중시되었다. 그러나 향이 왕실이나 고위 계층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고려시대에는 향을 매개로 한 신앙 결사인 향도(香徒)가 활발히 조직될 만큼 향 공양이 중시되었다. 〈고려사〉에서 언명했듯이, 고려 사회에서 향도는 곧 '계를 결성하여 향을 사르는 사람들(結契燒香 名曰香徒)'에 다름없었다. 신앙 공동체인 향도에 가입함에 따라 재력이나 권력을 갖추지 못한 일반 백성들도 불보살에게 값비싼 수입품인 향을 공양해 공덕을 쌓을 수 있었다.

향을 공양하는 문화는 향을 피우는 도구인 향로(香爐)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여성들 역시 향도의 일원으로서 향 공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향로를 발원하여 사찰에 향화(香火)가 끊이지 않도록 힘을 보태었다.

고려 금속공예의 정수, 청동은입사향완

향 공양이 널리 행해지고, 향 문화가 크게 발전했던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향로가 제작되었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향로는 크게 불전에 놓고 사용하는 거향로(居香爐), 긴 손잡이가 달려 있어 휴대하며 예를 올릴 수 있는 병향로(柄香爐), 어딘가에 걸어서 사용하는 현향로(懸香爐)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고려시대 향로를 대표하는 것은 단연 불단 앞에 놓는 거향로인 '향완(香垸)'이다.



'함평궁주방명 향완(咸平宮主房銘香垸)', 고려 13세기, 높이 23㎝, 국립중앙박물관. 사진=e뮤지엄



'함평궁주방명 향완(咸平宮主房銘香垸)'의 전의 윗면, 고려 13세기, 높이 23㎝, 국립중앙박물관. 사진=e뮤지엄



'기축명 월계사 향완(己丑銘月溪寺香垸)', 고려 13세기, 높이 17㎝, 동국대학교박물관. 사진=e뮤지엄

거향로는 아무래도 불전에 놓고 예배에 사용하는 것이니만큼 귀한 재료를 사용해 만들고, 실사용하는 데 있어도 소중히 다루었을 것이다. 병향로나 현향로와 달리 유독 향완에 발원문이 많이 새겨져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명문에는 보통 발원의 뜻, 제작 연대와 제작자, 봉안된 사찰 이름, 향완의 제작에 소용된 청동의 무게, '향완'이라는 명칭 등이 기록되어 있다.

향완은 넓은 전(테두리)을 두른 주발 모양의 몸체와 아래로 가면서 나팔형으로 벌어지는 받침으로 구성된 향로를 일컫는다. 고려시대의 향완은 대부분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개중에는 표면에 홈을 새기고 은실을 끼워 넣는 은입사(銀入絲) 기법을 사용해 장엄한 것들도 있다. 은이라는 귀한 재료와 장인의 숙련된 기량이 있어야 하는 청동은입사향완은 국내외에 10여 점 밖에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희소하다. 청동의 표면 위에서 은실은 때로는 활짝 핀 연화로 피어났다가, 탐스러운 꽃송이를 감싼 넝쿨이 되기도 하고, 구름 속을 노니는 용으로 화하기도 한다. 짙은 회색을 바탕으로 희게 빛나는 은실의 대비가 빚어내는 정련된 아름다움은 고려의 장인들이 도달했던 경지를 말없이 웅변한다.

'향도' 조직될 만큼 향 공양 중시
향완엔 유독 발원문 많이 새겨져
경장 안에 향완 안치한 함평궁주
경전에 헌향하며 불상처럼 예경

고려의 왕후, 향완을 공양하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청동은입사향완 한 점에도 명문이 있어 800여 년 전 고려 여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이 향완은 원형 받침, 나팔형의 받침대, 전이 달린 몸체를 모두 갖추고 있다. 높이는 23cm에 불과한 소형이지만, 귀한 재료인 은을 사용해 전체를 장엄한 완성도가 돋보이는 향완이다. 구연부 전의 밑면에는 화엄경장(華嚴經藏)에 두기 위해 함평궁주방(咸平宮主房)에서 1점의 향완을 만들어 바쳤다는 내용이 은입사로 새겨져 있다. 명문이 끝난 뒤에는 '도성(道成)'이라는 두 글자가 점각(點刻)되어 있다. 은입사로 공들여 기록한 명문과는 새긴 방법이 달라서, 후일 향완을 소지하거나 관리했던 승려의 이름을 추가로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향완의 원반형 받침의 가장자리는 연화문을 은입사하여 꾸몄다. 나팔 모양의 받침대 아래쪽은 연꽃의 꽃잎을 연속적으로 펼쳐놓은 듯한 연판문(蓮瓣文)으로 장엄하고, 그 위로는 포도당초문과 위아래로 긴 연판문을 은입사하여 장식했다. 향완의 몸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네 글자의 범자(梵字)이다. 각각의 글자는 여의두문(如意頭文)으로 둘러싸인 이중의 동심원 안에 은입사로 표현되어 있다. 구연부 전의 윗면은 보상당초문을 은입사해 꾸미고, 그 테두리와 측면은 운문(雲文)을 베풀어 장엄했다.

향완의 몸체 중앙에 새겨진 문자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옴마니파드메훔'의 육자대명왕진언에서 따온 '옴마니파드'의 4자이다. 육자대명왕진언은 11세기 말 고려에 전해진 〈대승장엄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에 수록되어 있다. 이 진언에는 모든 죄악을 소멸시키고 모든 공덕을 발생시키는 힘이 있다고 믿어졌다. 장인은 진언의 6자를 다 표현하는 대신 앞의 4자만 선택하여 표현했다.

명문에 보이는 '함평궁주'는 고려 제21대 국왕인 희종(熙宗, 재위 1204-1237)의 왕비인 성평왕후(成平王后, ?-1247)이다. 그녀는 희종이 즉위하고 7년 후인 1211년 4월에 정식 왕비인 함평궁주로 봉해졌다. 그런데 희종은 그해 12월 당시 실권자였던 최충헌을 사살하려다 실패하여 도리어 폐위당하고 말았다. 이후 희종과 태자를 비롯한 두 아들은 강화로 유배되었고, 왕후 본인만 궁궐에 남겨졌다. 1232년, 몽골의 침략 끝에 조정이 강도(江都)로 천도하자 왕후 역시 따라갔다. 왕후는 1247년 8월에 강도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이상이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는 함평궁주의 생애이다. 즉, 이 향완은 그녀가 함평궁주로 봉해진 1211년과 세상을 떠나는 1247년 사이의 어느 때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함평궁주는 불보살을 모신 사찰의 주요 전각이 아니라 경전을 보관하는 경장(經藏)에 두기 위해 이 향완을 발원했다. 고려시대에는 왕실과 귀족층에서 앞다투어 사경(寫經)을 발원했고, 목판으로 인쇄한 경전을 대장전(大藏殿) 안에 봉안하여 보관하는 등 경전에 대한 신앙이 크게 고조되었다. 경장 안에 향완을 안치했다는 사실은 경전을 불상과 마찬가지로 예경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점을 시사한다. 불상 앞에서 향을 올리 듯 경전 앞에서도 헌향했던 것이다. 경전에 대한 깊은 존숭심은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기축명 월계사 청동향완'에서도 확인된다. 이 향완의 구연부 안쪽 면에는 기축년 정월에 권응(權應)이 월계사 화엄경장(華嚴經藏) 앞에 두기 위해 향완을 발원해 시주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 여인들은 향을 피우며 그 향기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부처님 세계까지 널리 퍼지기를 바랐을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줄기의 향을 올리는 것은 곧 부처를 기도의 자리로 청하는 적극적인 행위기도 했다. 화엄경장 안에서 기도를 올리는 한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피붙이를 험한 유배지로 떠나보내고, 몽고의 침략으로 인한 본인마저 피난길에 올랐던 함평궁주는 향을 사를 때마다 수많은 기도를 올렸으리라.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조교수〉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행 스님

하나하나 자기한테 오는 문제를 실험해 보라

공부 체험을 하고 싶어요

질문 저는 요즘 유튜브 법문을 통하여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머리로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직 초보자라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마음공부 체험을 하고 싶은데 너무 욕심부리는 걸까요?

답변 우리 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정법은 뭐냐 하면 실행입니다. 실천과 실행! 모두 실험을 해 보세요. 내 가정에 어떠한 거, 내 자식을 위한다든가 내 부모를 위한다든가 내 몸을 생각한다든가 뭐, 어디가 아프다든가 일이 안된다든가 무슨 재판이 걸렸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거기에 맡겨 놓고 한번 실험을 해 보고 실천을 해 보는 데에 아주 목적이 큰 것이 있습니다. 실천 없이는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체험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기한테 오는 문제를 실험해 보시라 이겁니다. 가게를 크게 하는 어떤 거사님이 있는데 딴 사람들은 일요일 날 가게를 봐야 하니까 일요일 날도 못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법회 있을 때 한두 번 이 절에 왔다 가더니 자기 부인한테 "여보게! 그 한두 시간 문 닫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나? 우리 둘이 문 닫아 놓고 가세."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인제 빠지지 않고 법회 날에 온 겁니다. 그렇게 문 닫고 설법 듣고 가는 날은 문 닫지 않았을 때 보다 곱을 더 판다 이겁니다. 두 시간 비웠던 것보다 곱을 더 판다 이겁니다. 이렇게 실천과 실행을 하고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데는 그냥 뭐, 감탄할 만하죠.

법당에 와서만이 아니라 변소간에 앉아서라도, 또는 집의 안방에서라도, 일을 하면서라도, 나가서 작업을 하면서라도 '아하! 지금 내 영원한 이 한마음의 주인공이 아니었더라면' 즉 말하자면 이 속의 생명들이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껍데기가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그러니 한마음의 주인공 그 자체, 그게 한마음의 일심이거든요. 그게 전체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음의 일심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다니겠나. 감사하구나. 오늘도 우리 식구 이끌어 주고 이러는 거는 한마음의 주인공밖에 없구나.' 이렇게 믿고 다니시라 이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을 믿으랍니까, 허공을 믿으랍니까, 형상을 믿으랍니까, 고깃덩어리를 믿으랍니까? 자기 전생의 그 영원한 자기의 근본 주인공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도 자기를 끌고 다니는.

그러니까 모든 이 생활에서 지금 돌아가는 현상만 보고 끄달리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 보시면서 나간다면 그대로 될 겁니다. '이건 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돼.' 안 되긴 뭘 안 됩니까? 아니, 자기가 사량으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허허, 이건 모든 게 전생에 바로 내가 살던 내 영혼의 근본이 그 한마음이 돼서 전부 나가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무찌르고 나가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뭐, 그거야 주먹 불끈 쥐고 한번 칼을 뺐으면 드는 거지, 무슨 뭐가 어떠니, 뭐가 어때서 안 되느니 이러고 야단입니까? 그러니 주인공 자리를 확실히 믿고 놓는 데에 실천부터 먼저 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체험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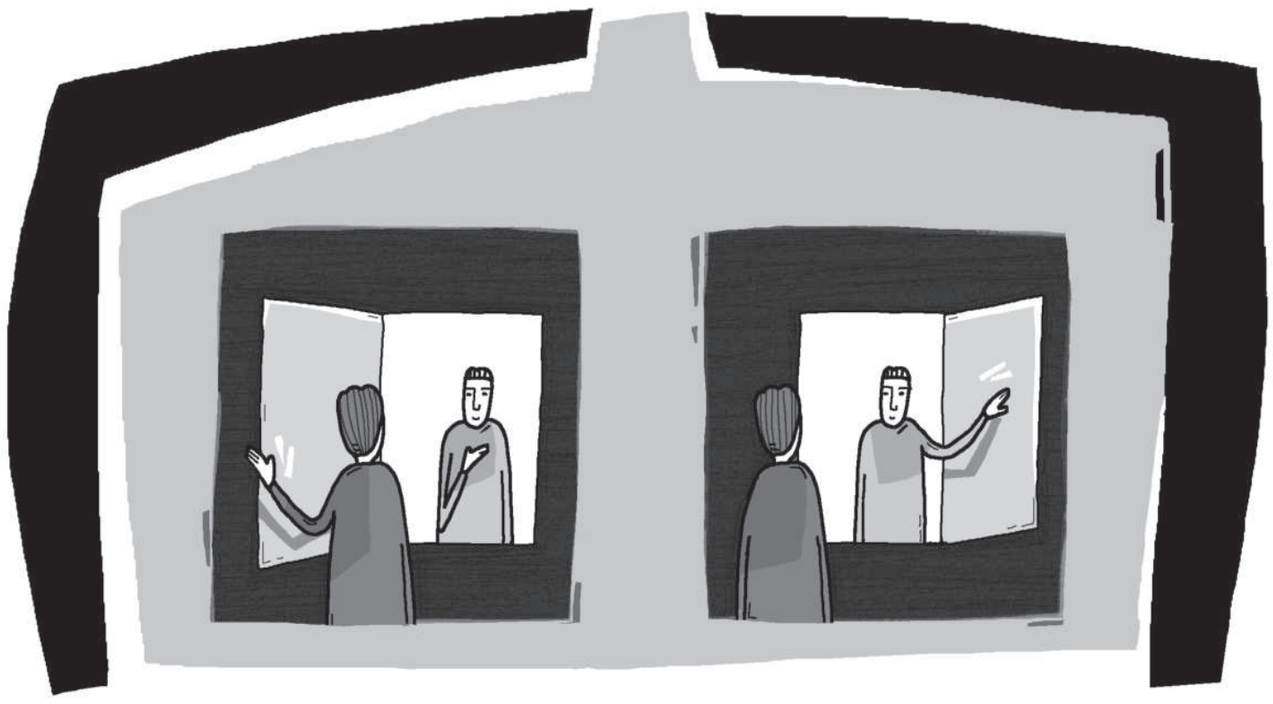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끊어 버리면 부처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끊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쇠가 많은데 말입니다, 못 쓰는 무쇠를 용광로에다가 넣어야 그게 한데 어우러져 녹아서 다시 생산이 되어 나오지, 그거를 못 쓴다고 다 버리나요? 버리는 거 봤어요? 또 금이라 할지라도, 하다가 잘못되고 끊어지고 그랬다고 버리는 거 봤어요? 금방에 가서 다시 생산하지. 그러니까 당신한테서 벌어진 건 당신이 해결을 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모든 걸 끊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바로 하나로만 생각하지, 둘로도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내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주인공이라고. 주인공은 이름이지마는 지팡이와 같다고 할 수 있죠. 다리가 아픈 사람은 지팡이를 짚어야죠? 나으면 지팡이는 저절로 놔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거를 내공에다가 믿고 다 놔 버리세요. 다 놔 버릴 때 하나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작용을 하는 거지 누가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 전체를 갖다가 한 생각에 들 수도 있는가 하면 한 생각에 다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한 생각에 업을 산더미 같이 지을 수도 있고 한 생각에 산더미 같은 걸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게 한 생각에 달린 건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십니까?

마음이 쉬어지지 않아요

질문 번뇌를 끊고 오로지 내 마음자리에 몰입하고 싶은데 들끓는 이 마음이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사회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고요. 어리석은 저를 위해 한마디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처음에는 모든 문제를 전부 하나로 몰아야 합니다. 하나로 놔 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내공에다가 그냥 놔 버리세요, 내공에다가. 놨을 때 하나로 되는 겁니다. 내공이란 이름 없는 내공! 이름 없는 게 공 아닙니까? 공에다 다 놔 버렸을 때에 그 공마저도 없더라는 것이 나올 때까지 다 놔 버려라 이겁니다. 그것은 끊는 게 아니라 돌리는 겁니다.

건강 때문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질문 나이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불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병원 가기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선뜻 나서기도 두렵고요. 마음공부를 한다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어 부끄럽지만 용기를 낼 수 있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몸속에 얼마나 많은 의식이 있습니까? 병이 나도 바로 '아, 이 병도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깐 한마음 속에서 낫게 할 수밖에 없지.' 할 때에 비로소 그 병은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병이 나으면 뭐가 되느냐. 자기가 약사가 된 겁니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 하나로만 생각하지 둘로 생각지 말라

☞ 19면에서 계속

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가난을 면했다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관세음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체 만법을 다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이 바로 현실의 모든 것을 보는 거고 듣는 거고 행하는 거고, 즐거운 거고 자유스러운 거지 누구를 주는 게 아니에요. 법당에 들어가면 바로 자기가 거기 있으니깐 부처님이 계신 겁니다. 부처님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 없다면 부처님은 없어요. 자기가 변소에 있기 때문에 부처도 변소에 있고 자기가 안방에 있으니깐 바로 부처도 거기 있고 하나님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딴 데 가서 찾습니까? 담요나 뭐 이런 거 둘둘 말아 가지고 산 기도 간다고 가지를 않나. 무슨 담요니 뭐니 해서 잔뜩 해 가지곤, 먹을 것도 미숫가루 해 가지곤, 그래도 살 양으로요. 아, 죽어야 죽은 세상을 보지 살고서야 어떻게 죽은 세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러 간대요. 상대가 어디 있어서 기도를 합니까?

자기는 오븐과 같아서, 바로 자기는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시자라고 하죠. 그러면 그 집 속에, 오븐이라면 그 집 속에서 별의별 만법을 다 끓여 내고 데워 먹고 거기서 다 나오고 들고 하는 거죠. 딴 데서 합니까? 만약에 우리 몸뚱이가 오븐이라면 거긴 불도 필요하고 뭐, 재료도 필요하고 모두가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다 넣어서 끓여 먹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여러분도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오븐에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데워서 먹고 끓여 먹고, 사다가 거기서 해 먹듯이 여러분 이 육신 속에서 다 해 먹을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요. 똥 누고 싶으면 똥 누고 먹고 싶으면 먹고. 여러분이 목말라서 냉장고 문을 열 때에 이유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똥 누러 갈 때에 이유가 붙던가요? 이유가 절대로 붙지 않습니다.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자기를 자기가 믿고 자기를 자기가 다스려 나가는데 거기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나는 이게 아리송해. 이게 아리송해. 그거 뭐, 누구나가 다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섯 살 먹은 아이도 그 이론은 다 알아요. 아마 나보다도 더 잘 알 거예요. 하지만 90살을 먹어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전부 병 앓는 사람 또는 정신이상자, 또 그 뭔가, 콩팥에서 걸러 주지 못하는 병. 난 이름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위암 식도암 목암 할 거 없이 말도 못 해요. 그런데 그 재료를 가져왔으니 그 재료를 가지고 실험해 봐라 이럽니다. 나는요, 내가 의사가 돼서 고쳐 주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을 고치면 바로 그건 저절로 고치는 거니까 그 실험을 해 봐라 이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한번 실험해서 그거를 탁 포착을 했으면 체험을 하고는 다른 게 돌아오면 또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실험한다고 그래도 편안하죠. 일하면서 말입니다. 앉으나 서나 그냥 참선입니다, 실험이고. 그대로 그냥 연구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생활이 없고 부처가 어디 있으며 생활이 없고 여러분이 없고 부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도 자기의 근본에 맡겨 놓고 모든 것 주인공이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편안하실 겁니다.

> 여러분이 목말라서 냉장고 문을 열 때에 이유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 똥 누러 갈 때에 이유가 붙던가요?
> 이유가 절대로 붙지 않습니다.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 자기를 자기가 믿고 자기를 자기가 다스려 나가는데 거기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질문 저는 마음공부를 하면서 나름 중심을 잘 잡고 간다 생각하는데 문득문득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속상해서 잠을 설친 적도 있어요. 아직 한참 부족한가 봅니다. 저와 같이 미혹한 중생들을 위하여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비교를 하죠. 좋고 나쁘다 비교를 하고 예쁘다 또 밉다 '아이, 저건 참, 아이고, 저건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 비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수십억 마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의식이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내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자꾸 그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뻐하든지 미워하든지 거기에 자기가 충동을 일으킬 게 뭐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비교해서 나가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그것을 생각했으면 그대로 그냥 놔두고 거기에 자꾸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박을 앞에 놓고도 말입니다, 하얗다 파랗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속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걸 깨뜨려 먹기 이전에 그거에 속지 않아야 그걸 먹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파랗다 하얗다 붉다, 이런 말에 속지 말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이 주인공에 놔라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왜 거기에 끄달리랴. 거기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러고선 내가 그렇게 끄달리지 않고 속지 않는다면 수박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요, 어떤 때는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엉뚱한 생각으로 갑니다. 그래 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또. 이게 참,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 나는 나로 인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법은 없습니다. 단 하나, 어떡하면 쉽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 드려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이 도리를 알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생각을 하다 보면 시도 읊어지고 어떤 때는 눈물도 흘려지고 말입니다, 아주 먼 산을 바라보고 '인간은 왜 먹고 살아야 해? 먹고 사는 거 때문에 모든 게 죽이고 죽고 쫓고 쫓기고 이러지 않나. 이런 처참한 일이 어디 있나.' 하고선 나 혼자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나 인제는 좀 다릅니다. 속지 않으면 모두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전자에 살던 그 자기가 말했고 행했고 한 것대로 입력이 돼 있는 게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뭐, 붉다 검다, 모른다 안다 이런 그 모두에 속지 말고, 자기는 자기가 모든 걸 못하든지 하든지 지켜보고 지켜 주고, 자기가 하더라도 꽁지에 꽁지를 물고 밤새도록 잠 못 자지 마시고, 그럴 때는 '에이 그,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 너 알아서 해라.' 그러곤 그냥 탁 맡겨 놓고 그냥 '잠 좀 재워! 네가 있다면 잠 좀 재워, 좀.' 이러고선 그냥 자는 거죠, 뭐. '네가 없다면 모르지만 네가 있는데 잠 좀 재워!' 이러고선 그냥 자는 거죠.

옛날에 어떤 스님이, 나라의 국사로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분이 아주 재세를 부리고 그냥 스님들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거기에 왕림을 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고?" 하고 그 국사 스님한테 물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스님께선 그렇게 풀밭에서 애를 쓰십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 또 "내가 어디 있는고?"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 스님은 왜 들판이고 산이고 그냥 길도 없는 데를 그렇게 다니십니까?" 하더랍니다. 그래서 잠자코 한참 있다가 또 "내가 지금 어디 있는고?" 하니까 깜깜한 겁니다. 문을 탁 닫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하죠. 그러니까 "요 요망한 거!" 하고 그냥 주장자로 한 대 얻어걸리고선 그냥 도주를 하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것도 공했고 주장자라는 이름조차도 공했으니 때릴 것도 없고 때리지 않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건 우리가 그대로 여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모두 끄달려서 잠 못 자고 병들고, 또 이 회사를 하는 것도 그래요. 그게 망했다고 해서, 장사를 하다 망했다고 해서, 공부를 하다가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낭패로 생각을 하지 말고요, 모든 건 거기에 속지 말고 그건 그것대로, 그 생각이 나오는 건 그것대로 그냥 그 주인공에서는 모든 게 과거에 입력된 게 나오는 거지 지금 현실의 것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놔두고 나 할 거를 꾸준히 해 나가세요.

우리가 위가 따로 있고 아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없어도 아니 되고 발이 없어도 아니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며 평발이라고 했습니다. 평손! 이거 소홀히 생각할 게 아니죠. 그러니 아래면 어떻고 위면 어떠냐. 이게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 끝마쳐서 한번 뒤집어서 양면을 다, 무의 법 유의 법을 한데 합쳐서 이 세상에 내놨을 때는 크나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이지 빛을 주는 거와 한가지입니다. 광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나왔다가 그러한 거 하나를, 정말이지 모든 사람한테 밝고 밝은 광력의 그 길을 틔워 줄 때 그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속지 마시고, 속아서 잠 못 주무시지 마시고 또 속아서 병들지 마시고, 또 가정도 화목하고 그래야 할 텐데 속아서 그냥 서로 으르렁으르렁하고 껄쭉껄쭉하게 사시지 말고요, 우리 다복하게 한 생을 즐겁게 이렇게 삽시다.

큰스님 부르면 마음 든든해요

질문 해외에서 힘든 유학 생활 중에 큰스님 법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큰스님 색신은 안 계시지만 마음으로 '큰스님!' 하고 부르면 항상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것도 착이 되는 걸까요?

답변 우리가 부르고 싶을 때 "스님!" 하고 부르나 또 애 이름을 부르나 늙은이 이름을 부르나 이름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생각이 문제지. 그 생각하고 부르는 놈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놈과 그 대답하는 놈이 항상 같이 둘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저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다 전기가 한데 합쳤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떠한 에너지를 용도에 따라서, 우리 우주 만물이 다 자기네들 용도에 따라서 배운 대로 다 쓰이게끔 돼 있거든요.

우리가 땅에서나 허공에서나 이렇게 에너지를 끌어 쓸 수 있는 한 끌어 쓸 수 있는데 왜 없다고 가난하게 우느냐. 너희들이 해서 너희들이 쓰지 어째서 없다고만 하고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이 만들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깐 수백 년 수십 년 만들어진 것만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만들어서 그 수십 년 쓴 거보다 더 위대하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사람의 머리들이, 그 누진이 다 하는 거다. 잘해보세요, 빛이 되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부처님이 바꾼 건 삶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

㊱ 불가촉천민 니디를 바꾸신 부처님, 부모 교육 '자존감' (1)

자존감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는 힘이자 삶을 살아갈 이유를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기반이다. 자존감이 무너질 때, 사람은 남의 평가에 쉽게 휘둘리고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을 잃는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해지고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는 감정이 따라붙는다. 그래서 자존감은 그 자체로 우리의 정신 건강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다.

하지만 자존감은 결코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 특히 자녀에게 자존감은 부모의 시선과 말투, 기대 속에서 서서히 형성된다. 아이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부모의 반응을 통해 배우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낀다. 부모가 조건 없이 사랑하고 지지할 때, 아이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반대로 사랑이 조건적이거나 비교와 비난이 반복되면 자녀는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잘해야 사랑받는다', '실수하면 미움을 산다'는 생각은 자존감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태는 심리학적으로 조건부 자기존중감이라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존중이 부모의 평가나 외적 성취에 따라 좌우되면서 자존감은 쉽게 흔들린다. 또한 부모의 기대에 지나치게 맞추려는 외적 자기지향성, 형제나 또래와의 끊임없는 비교는 '진정한 나'를 드러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진정성의 결여로 이어진다. 이러한 내면의 불균형은 자녀의 자아정체감을 혼란스럽게 하고 성장 과정에서 삶의 주체로 서는 힘을 약화시킨다.

2600년 전 인도의 어느 숲길에서도 한 사람이 '존재의 수치심'에 짓눌려 있었다. 똥을 치우는 일을 하며 불가촉천민으로 살아가던 니디(Nidhi)이다. 당시 인도 사회에서 그는 마을 외곽에 따로 살아야 할 정도로 천대받는 존재였다. 누구도 그를 사람답게 대하지 않았고, 그의 냄새조차 기피 대상이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길을 걷는 것을 본 니디는 그들을 피해 숲으로 몸을 숨겼다. 존재 자체가 불편함이 될까 두려워 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오히려 그를 향해 다가갔다. 더러운 똥물이 튀었지만, 부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물가로 데려가 몸을 씻게 하시며 "사람은 본래 천하거나 귀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일러주셨다. 이는 인간의 가치는 외적 신분이나 사회적 낙인이 아닌, 존재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불교의 근본 사상을 보여준다. 나를 천하게 여기는 인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아에 대한 왜곡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방과 자유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다.

'아이의 자존감'은 부모라는 거울 통해 성장
존재 자체 존중받을 때 스스로 귀하게 여겨

이 이야기는 단지 차별에 대한 교훈을 넘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방식을 깊이 성찰하게 한다. 자녀의 실수나 부족함보다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시선이 자존감을 회복시킨다.

상담실에서 만난 한 부모는 자신의 딸 지민(24세, 가명)에 대한 깊은 걱정을 털어놓았다. 지민은 성인이 된 지금도 자존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데에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위축되고 어떤 말이든 자신을 향한 충고나 평가로 받아들였다. 실수하지 않으려 늘 긴장했고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애썼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뿌리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어머니로부터 받아온 비난과 통제의 말들이 깊게 박혀 있었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늘 저를 못마땅해했어요. '그것밖에 못 하냐', '넌 왜 맨날 그래' 같은 말이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말하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저를 깎아내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괜히 죄송하고….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지민은 점점 자신을 하찮고 문제 많은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결국 자신을 탓하고 움츠러드는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 맺는 법을 배워온 것이다. 마치 니디가 자신을 더러운 존재로 여겨 숨어들었던 것처럼, 지민 역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감추려 했다. 부처님은 니디의 삶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새롭게 바라보셨을 뿐이다.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존재를 새롭게 본다는 것은 한 사람을 성취나 실수,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바라보는 일이다.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받는 순간, 아이는 스스로를 다르게 느끼기 시작한다. 더 이상 부끄러움에 가려져 있던 자신이 아니라,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감각을 내면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자존감이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다. 내면의 존엄함이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니디처럼 숨어 지내고 자신을 낮춘다. 하지만 어떤 존재도 본래부터 더럽거나 귀하지 않다. 때로는 얼룩지고 구겨지더라도, 삶도 자녀의 마음도 다시 정돈되고 회복될 수 있다. 부모가 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거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건강 365

머리 감을 때 어깨 아프세요? 병원부터 가세요

㊲ 흔한 어깨 통증 원인

주변을 보면 통증을 동반한 어깨 관절의 뻣뻣함 또는 근력 감소로 인해 높은 선반이나 차 뒷좌석의 물건을 잡거나, 심지어 머리를 빗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통증 중에서도 병원을 방문해야 할 정도로 심한 어깨 손상의 경고 신호로 알려진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통증, 동작 범위가 감소하고, 잠을 깨울 정도의 통증, 부기, 압박감 또는 타박상을 동반한 통증, 지속적인 통증 또는 계속 악화되는 통증,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아이싱과 항염증제를 복용한 후에도 완화되지 않는 통증일 때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픈 어깨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치료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이므로, 이 글에서는 "비교적 흔한" 어깨 통증 원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전근개는 종종 한 개의 근육인 것처럼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개의 작은 근육과 힘줄의 네트워크가 함께 작동하여 팔을 들어 올리고 움직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근육과 힘줄은 상완골 관절을 어깨 소켓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과정에서 마모와 찢어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회전근개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4가지를 살펴봅니다.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파열은 말 그대로 팔뼈에 연결된 회전근개 힘줄의 부분 또는 전층 파열입니다. 힘줄은 팔을 쭉 뻗은 채 넘어지는 것과 같이 한 번의 사고로도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동작으로 (특히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밤에 어깨 통증으로 잠들기가 어렵거나, 작은 충격에도 아파서 잠에서 깬다면 하나 이상의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되었을 수 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통증을 느끼거나, 어깨 높이 위로 물건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 어깨에 힘이 빠지는 경우에도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매우 경미한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휴식, 얼음 찜질,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의 사용과 물리 치료가 처방되나,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전층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권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개 건염

회전근개 건염은 회전근개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자극을 받을 때 발생합니다. 통증은 보통 어깨 앞쪽과 옆쪽에 느껴지는데, 약간의 뻣뻣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는 테니스, 요가 또는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이 팔을 머리 위로 사용하는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휴식, 얼음찜질 및 NSAIDs 복용, 스트레칭 및 재활 운동이 포함

대부분 어깨 통증 물리치료 등으로 해결
기본 활동에 영향 있으면 늦지 않게 내원을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몇 주 이내에 건염에서 회복됩니다.

회전근개 활액낭염

윤활낭이라고 불리는 작은 액체주머니는 관절 운동시 윤활을 제공하고 근육, 힘줄 및 뼈가 움직일 때 마찰을 줄이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관절을 어색한 자세로 유지하면 윤활낭이 악화되어 부종과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활액낭염은 종종 건염과 함께 발생하며, 유사한 통증 및 치료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손상으로 인한 부종은 마찰로 이어지거나 상완골과 견봉뼈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해 근육과 힘줄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 충돌은 상당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일반적으로 물리 치료, 휴식, 얼음찜질 및 재활 운동으로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지속됩니다.

오십견

회전근개 손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통증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십견'입니다. 오십견은 유착성 관절낭염(adhesive capsulitis)이라는 공식 명칭이 있는데, 이는 어깨가 뻣뻣해져서 움직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어깨(동결견), 또는 고령의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어깨 (오십견) 과 같은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질환은 어깨의 볼-소켓 관절에 있는 관절막 조직이 두꺼워지고 뻣뻣해질 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통증 없이 팔을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팔을 덜 움직일수록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결국, 어깨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느낌이 듭니다.

일부 사람들은 부상 후 유착성 관절낭염이 발생하지만, 오십견 진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부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한 당뇨병, 파킨슨병 및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인한 몇 가지 다른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오십견은 적극적인 치료로도 해결되는 데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깨의 가동 범위를 목표로 하는 운동과 스트레칭도 증상을 억제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초음파 유도하에 관절강내 주사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어깨 통증이 머리를 감거나 손을 뻗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어깨 진찰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어깨 통증은 물리 치료, 휴식 및 주사 요법 등을 조합하면 해결할 수 있으므로, 너무 늦지 않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승준
거인병원 대표원장



전법 일기

김 보살이 가져온 순례 가방엔 아이들 줄 생필품들 가득했다

수년 전, 조계사 불교대학 동문회에서 미얀마로 성지순례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자는 조계사 불교대학 출신이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 함께 봉사해온 김 보살님의 간곡한 권유로 순례길에 동참할 수 있었다.

출발 당일, 공항에서 마주한 보살님은 온몸으로 짐을 감싸 안고 계셨다. 가장 큰 가방부터 중형 가방, 기내용 가방, 배낭, 핸드백까지. 세 개의 커다란 가방은 항공편으로 부치고, 손에는 배낭과 가방만 들고 비행기에 올랐다. 그 모습이 어쩐지 단단해 보였다.

미얀마 호텔에 도착했을 때 필자는 김 보살님과 같은 방을 배정받았다. 방 앞에는 이미 세 개의 가방이 도착해 있었고, 함께 방으로 옮기는데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이사라도 오신 건가' 하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가방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다름 아닌 아이들에게 줄 옷가지, 간식, 사탕, 문구류, 생필품들이었다. 차곡차곡 정성스레 싸인 그 물건들 하나하나가, 마치 보살님의 마음 조각 같았다.

"이건 모두 이곳 아이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보살님의 말에 필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보살님은 여든 셋. 그 연세에도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 종로 조계사까지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봉사를 다니셨고, 경복궁과 창덕궁에서는 문화유산 해설 봉사도 이어가고 계셨다.

한국전쟁 당시 공군부대에서 통역사로 활약한 공로로 훈장을 수훈했고, 매달 받는 보훈비 50만 원은 모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시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사업 중인 사위가 보내주는 용돈마저 아껴 모아 〈약사여래경〉을 1000권씩 인쇄해 보시하신다는 이야기는 감동이었다.

순례 마지막 날, 가져온 옷과 생필품, 간식들은 모두 나누어 주고 여행용 가방마저 전부 보시한 보살님은 손가방 하나와 텅 빈 배낭만을 들고 문 앞에 섰다. 침대 위에는 깨끗한 지폐 몇 장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방을 향해 합장을 한 채 반배를 세 번 올리셨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숙연해졌다. 마치 오래 머문 집을 떠나는 듯한 작별. 그 방을 향한 인사가 수행자의 진심처럼 느껴졌다. 신·구·의 삼업이 정화되는 순간을 곁에서 마주한 나는, 깊은 감동을 품고 조용히 따라 합장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다음 캄보디아 순례에 나설 때, 필자도 남대문 시장에서 여행가방 가득 생필품을 사 들고 갔다. 현지 사찰에 대중공양을 올리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보살님, 저도 따라 하고 있어요."

사는 동안 우리는 때때로 큰 스승을 만난다. 말보다는 삶으로 가르쳐 주는 분들.

나에겐 김 보살님이 그러셨다. 그날 이후 나는 내 마음 속 불심(佛心)을 다시 가다듬고 '늘 나누며 행복하리라' 다짐한다.



조정희
국제포교사, 명상 전문 트레이너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⑮ 여래의 오분법신

복밭 되고자 한다면 법신을 갖추라

오온(五蘊)은 모두 공하다. 〈반야심경〉에서 선언하듯이 오온개공의 고백으로 도달하는 수행의 지점은 어디인가? 이는 삼법인의 하나인 제법무아의 교리로 연결된다.

오온과 무아론은 인도전통의 오장설과 아트만론에 대한 반대급부이다. 그 증거는 3세기에 한역된 〈수행도지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인도의 수행전통을 반영하며 수행의 경지를 현상적으로 분별하는 설명으로 가득한 〈분별상품(分別相品)〉에는 오온으로 구성된 몸에 대한 견해를 다음처럼 명시한다.

몸에 대한 모든 법을 분명히 깨달아 안다면
즉시 그 마음이 돌아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니
마음이 날뛰며 나아가는 바를 방편으로 통제하여 멈추어야 한다.
(假使曉了身諸法 則知其意所歸趣 方便制止心所趣: T15, 191c4-5)

불전은 심법을 중시하며, 색법인 몸은 부정한 것의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 즉 더럽고 허망한 것으로 설명하는 방식임에 비하여, 〈분별상품〉은 몸에 대한 모든 법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 마음의 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수행이 원만해졌을 때 이 오온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마음의 법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수는 없는가? 4세기경 한역된 〈보살영락경〉에는 약간의 암시가 있다.

여래의 5근(根)은 법신의 계, 정, 혜, 해탈, 해탈지견의 몸을 성취한다. 이것이 여래의 5분법신(分法身)이다. 여래의 신묘한 지혜는 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如來五根成就 法身 戒身 定身 慧身 解脫身 解脫知見身 是謂如來五分法身 如來神智 不毁法身: T16, 23a13-16)

전통적 오분법신은 깨달음의 자리에 도달한 존재가 구비한 공덕으로, △계온(戒蘊) △정온(定蘊) △혜온(慧蘊) △해탈온(解脫蘊) △해탈지견온(解脫知見蘊)을 말한다. 그런데 〈보살영락경〉의 '식계품'(識界品)은 계신(戒身)으로부터 시작하여 해탈지견신(解脫知見身)의 오분법신으로 설명한 것이다. 즉 '지혜와 선정의 5분법신을 식(識)으로 분별'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계(戒)의 향으로 몸을, 정(定)의 향으로 뜻을, 혜(慧)의 향으로 혼란함을 거두어들여야 한다. 그리고 해탈의 지혜(解慧)로 뒤바뀐 소견을 통제하고 해탈지견인 도지(度知)로 무명을 멈추게 한다.(戒香攝身, 定香攝意, 慧香攝亂, 解慧攝倒見, 度知攝無明: T16, 19a11-12)

〈보살영락경〉의 이 설명은 〈분별상품〉에 대한 보충설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5세기경 한역된 〈대반열반경〉은 오온으로부터 출발한 신체에 대한 검토를 아라한과와 연결하여 설명한다.

아라한의 과위는 곧 무학(無學)의 오분법신인 계정혜와 해탈과 해탈지견이다. 이 다섯 가지로 인하여 저 언덕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阿羅漢果者 卽是無學 五分法身 戒定慧解脫解脫知見 因是五分 得到彼岸: T12, 827b20-22)

오온개공에서 출발한 법신론의 특이한 흐름은 일체의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이라는 불교의 큰 흐름으로 합류한다. 누구든 세상의 복밭(福田)이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신을 갖추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오분법신의 수행력을 점검하는 테크닉이 다시금 요구되고 있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지진 피해 미얀마에 무한한 자비심을

4년째 이어지는 군부 쿠데타와 오랜 내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미얀마에 3월 28일 7.7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했다. 미얀마 군부에 따르면 4월 10일 현재 3600여명이 숨졌다. 40도가 훌쩍 넘는 기온과 강우 등 악천후가 겹치며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늦다는 점이다. 중국·러시아 등이 구조팀을 파견했지만, 미국 등 서구의 공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얀마 지원을 위해 현지에 파견한 미국 국제개발처 직원들을 4월 5일 해고했다. 미국의 지원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200만달러(약 29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고 추가 물품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불교계도 애도와 함께 긴급 구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국제협력NGO 더프라미스와 함께 긴급 구호단을 구성하고 4월 8일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을 포함한 3명의 구호단을 파견했다. 이들은 도착 즉시 만달레이 지역에 1만 5000달러, 인레 지역에 5000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과 미얀마에 지부를 두고 있는 로터스월드와 지구촌공생회도 지진 피해 긴급 구호·복구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사십이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그를 도와 함께 기뻐한다면 그 얻는 복이 매우 크다"면서 "한 개의 횃불이 있는데 수천 명의 사람이 각기 불을 붙여 가서 음식을 익혀 먹거나 어둠을 밝힐지라도 원래의 한 개 횃불은 변함이 없다. 복덕도 이와 같다"고 하셨다.

12·3 비상계엄사태에 따른 대통령 파면과 영남 산불 등 국가적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큰 피해를 입은 이웃나라를 돕는 것은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다. 미얀마 지진 피해 성금 모금에 불자들이 자비심을 내 조금만 더 정성을 보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부처님 말씀대로 복덕을 쌓는 기회이기도 하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세시간 염불도 거뜬 !

하던 내 체력! 이제는 30분 염불에도 무리가 오니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그러나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마이크와 2m 멀리서 세시간 힘빠진 작은 염불 소리에도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염불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휘감는 특수염불마이크를 지금 소개합니다.

현장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마이크 : 이태리 성악전문 수입품(Schoeps Martin)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frac{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너와 나, 모두 도움 되는 대화를

현불논단



무상 법현 스님
열린선원장, 보국사 주지

지난해부터 얼마 전까지 한국사회는 큰 홍역을 앓았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고, 이에 군경은 국회 장악을 시도했으나 시민들이 이를 가로막았다. 야당과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해 비상국회를 열고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에도 계엄과 탄핵 관련 여론이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반쪽이 났다. 그렇게 123일이 지났고, 헌법재판관들의 선고로 4월 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다. 이제 그는 일반인으로 돌아가 그와 부하들이 일으킨 행위에 관한 재판을 받게 됐다.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지구촌 가족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주변에서 만나는 외국인 도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흥미롭게 지켜보았던 것 같다. 이들은 "교과서로는 볼 수 없는 민주주의와 정치, 그리고 책임자와 시민들의 행동을 살펴 볼 기회였다"고 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와 종교 문제를 대화 주제로 올리는 것은 '싸움의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치와 종교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빼고 사회 전반의 문제 대해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치와 종교 문제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은 해당 주제를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나와는 다른 주장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하고, 틀렸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애시당초 대화와 토론의 출발점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이다. 당장의 공감과 이해가 어렵다면, 우선 경청이라도 해야 하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정치·종교 논쟁 민감한 韓사회
감정으로만 상대와 대화하기 때문
바른 논쟁은 사회 발전을 이끈다

우리는 스스로가 논리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논리를 말하기 보다는 감정을 섞어 말하게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교감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873년 스리랑카 '파아나두라'라는 마을에서 1만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불교의 스님과 기독교의 목사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를 '파아나두라 대논쟁'이라고 한다. 당시 스리랑카의 시대적 배경은 네덜란드 식민지가 끝나고 영국의 지배(1796~1948)에 들어간 시기다. 지배자들은 스리랑카의 국교인 불교의 활동을 제한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강요했다. 에에 모호티왓테 구나난다 스님이 토론을 제안했고, 이를 수록한 기독교계에서는 데이비드 데 실바 목사가 논쟁에 참여했다.

이들은 영혼의 문제부터 육체와 정신, 교주의 지혜, 죽음, 경전의 신뢰성 등에 대해 논의했고, 결국에는 불교의 승리로 끝났다. 두 종교인의 논쟁은 날카로운 이성을 바탕으로 이뤄졌고, 논쟁 후에도 어떠한 폭동과 갈등도 없었다. 이 논쟁은 현재까지 스리랑카가 불교국가로 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한국불교의 '화쟁'도 갈등을 풀어가는 대화법이다. 불교의 대화법은 목표가 명확하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도움되는 대화이다.

산불과 장애인 재난 환경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4월은 장애인의 달이다. 장애인에게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달이지만 장애인들이 처한 취약한 사회적 환경에는 관심이 높지 않다.

얼마 전 발생한 영남 지역 산불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경제적으로 더 큰 피해를 주어 빈곤을 가중시킬 수 있다. 재난의 빈곤화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취약계층에게 더 집중된 큰 피해로 나타난다. 반지하 주택, 저지대나 산림 주변 주택 등은 재난 발생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쉬우며, 방재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폭우, 태풍, 산사태, 산불 등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은 재난 관련 정보와 지원 서비스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대피나 지원 요청이 늦어지고 피해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재난지원체계가 장애인과 노인 등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된다. 이는 장애인이 공공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거나 행정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22년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 사망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영남 지역 산불 등은 주로 노약자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왔으며 겉으로 파악되지 않는 장애인들의 빈곤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입장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의 빈곤화의 원인과 그 대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피부에 금방 와닿는다. 장애인들은 재난 위기 상황에서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재난 이후 생계의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영남 산불, 취약계층 피해 집중
사회적 약자, 재난에 더 취약해
산불 피해 장애인에게도 관심을

장애인이 재난상황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으로는 장애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주택이나 시설의 접근성이 열악하여 재난시 신속히 대피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재난 정보 접근성의 한계는 재난 발생 시 뇌병변장애·청각장애·시각장애·지적장애 등 장애 유형에 따른 정보 접근성 문제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재난경보시스템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응 매뉴얼이나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재난지원책에서 장애인이 배제되는 사례도 있으며,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시 보호소 등은 장애인의 재난 이후 생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 재난 정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유형에 맞춘 재난경보 시스템 구축(수어 방송, 음성 안내, 문자메시지 등) 및 제공을 의무화하고, 재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장애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불교계에서는 영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고 소실된 사찰과 불교문화유산 복구에 마음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산불로 재난을 당한 장애인에게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겠다.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재난 피해를 줄이는 게 아니다. 부처님 법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사회적 포용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社 說

조계종 성역화 불사에 거는 기대

조계종은 4월 7일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 설계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9개 업체 중 심사를 통과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었다. '화엄의 세계를 체험하는 여정의 공간'을 주제로 한 설계는 10·27법난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불교 전통문화의 정신을 계승하는 복합 문화 추념공간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의 숙원 사업이던 10·27법난 명예회복과 피해자 예우를 위한 기념관 건립에 한 발짝 내딛게 됐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도 기쁜 소식이 들렸다. 바로 그동안 조계사 일주문을 막고 있던 동양금박 건물이 5월 말에 철거된다는 것이다. 동양금박 건물은 토지면적은 크지 않지만 일주문 바로 앞을 가로막고 있어 사찰의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2014년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조계사는 사부대중의 모연으로 2021년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세입자와 점포 인도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 3년간 철거가 지연됐다.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조계사 성역화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조계사와 봉은사에서 이뤄지는 성역화 불사 모두 조계종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한 곳은 국가권력이 자행한 희대의 법난을 기억하고 추념하는 장소가 될 것이고, 다른 한 곳은 근현대기 한국불교의 법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던 도량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어서다. 10·27법난기념관 건립불사와 조계사 성역화 불사가 원만 성취되길 기원한다.

문화의 힘으로 전법·포교하라

2025 서울국제박람회가 많은 화제를 낳은 가운데 성료했다. 4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열린 박람회는 사전등록 4만명을 비롯해 총 20만명이 관람했다. 힙한 트렌드를 반영한 불교 굿즈에 MZ세대들은 열광했고, "무소유하러 왔다가 풀소유하고 간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봉은사에서 펼쳐진 '시민과 함께하는 한국전통 불교문화 체험' 야단법석도 관람객의 오감을 사로잡았다. 전통문화와 불교문화, 우리 음식을 체험할 수 있었던 야외 체험부스는 연일 관람객과 체험객으로 북적였다.

4월 8일 강화 길상면 공설운동장에서는 전등사기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다. 지역 어르신들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열리는 게이트볼 대회는 올해 20회를 맞아 그 의미를 더했다. 전등사는 2006년부터 게이트볼 대회를 열어, 어르신 복지와 지역 포교 증진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파크골프가 어르신들의 스포츠로 자리 잡자, 조계종은 승려 연수교육 과정으로 파크골프 수업을 인증했다.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는 2023년부터 직지사배 자선파크골프대회를 열고 있다.

지금은 문화가 중심이 되는 시대다. 세대와 성별, 국경을 뛰어넘는 것은 문화밖에 없다. 불교는 오래전부터 '문화'를 기반해 전법해왔다. 경전의 변상도, 불화는 모두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문화는 한국불교 전법의 중요한 아이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4월 16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4월 16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4월 16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어싱Earthing 슈즈 특별전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접지 슈즈



◀베이지



블랙▶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어싱 샤모아 슈즈

어싱 샤모아를 새로 출시합니다.

샤모아 (chamois) 는 다공성 가죽의 일종으로, 유럽의 샤모아 산양의 가죽에서 유래된 것.
오늘날에는 지역 구별없이 산양의 가죽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매우 유연하고, 의복용, 장갑용 사용되기도 하며, 세탁해도 유연성이 변화되지 않고
더운 여름에도 땀이 덜 차는 장점이 있다.



판매가 80,000원 사계절용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4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